

PL

# 소학생

國立圖書館  
新刊  
總發行

★ 53 호 ★



의

가 협 발 행

1

1 원 권



# 소학생 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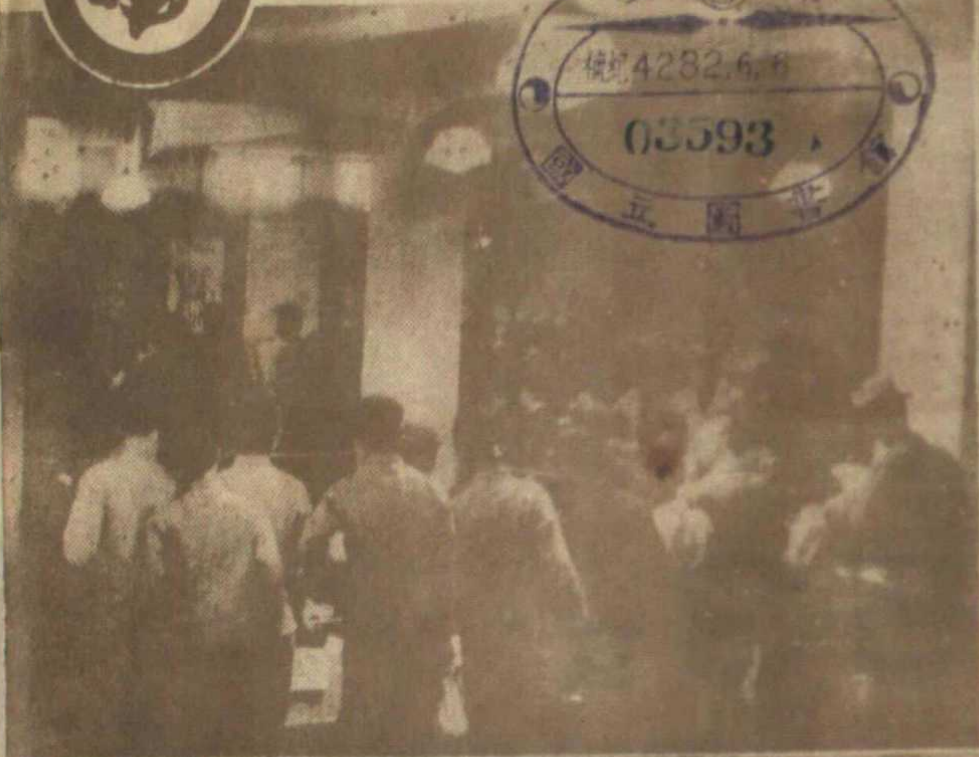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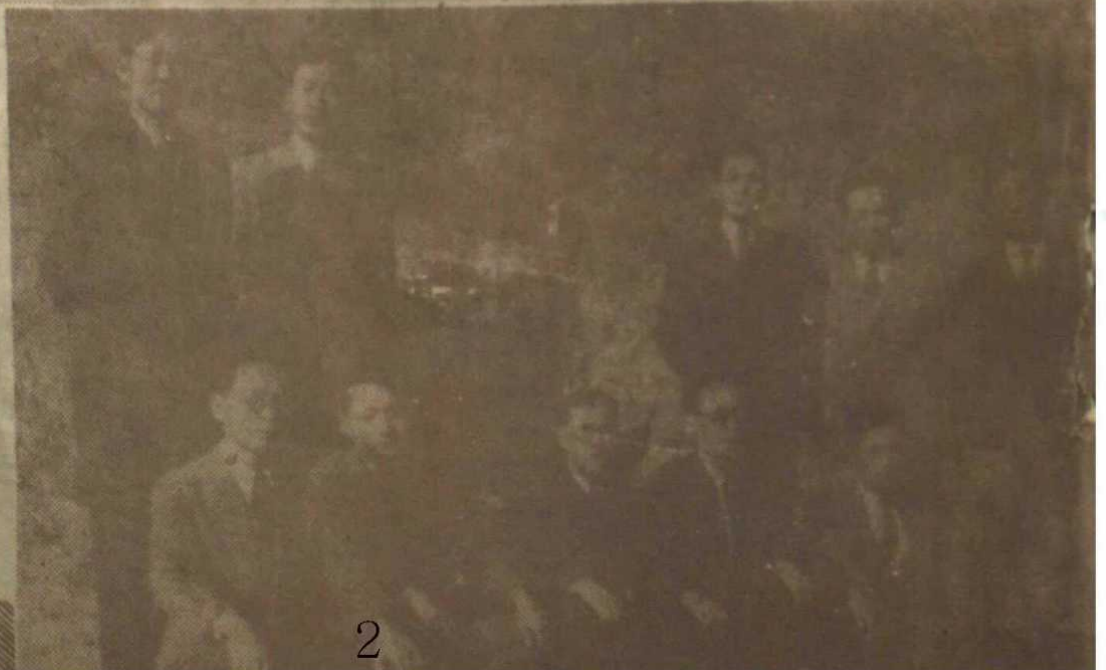


사진 설명 우선 과학  
교수 동우회와 안철자공물  
 주회로, 지난 10월에 화성  
 역 화실에서 열렸던 "우리  
 과학 전람회" 의상회 일부  
 와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  
 데는, 이회에서 "우리 과학  
 전람회" 에 참석한 본관과  
 자모하신 선생님들을 한자  
 띠에 모시고 이리까지 그들  
 말을 들었다



말은, 망우회에 고요리  
 감드신 스파 방 결환 선생  
 의 무덤에 참석하신 선생님  
 들 소문 전에 앉으신 분이  
말 선생의 아드님, 그 다음  
 은 윤 석중 선생님, 한  
결마의 조 봉현 선생님, 다  
 음은 장 은경 선생님, 그  
고 원원 끝에 스실 분은  
 이 영원 선 정 님이시다.



— 차례 —

공포·피해자가 많음—순무(6)  
 공포·갈등·외로움·기쁨  
 .....순무(7)  
 풍화·결.....김소영(8)  
 풍화·자살의 공포.....김민(9)  
 소설·초판·상상의 힘·가정(12)  
 소설·꿈·아이의 기쁨  
 .....죽구상(10)  
 정거·꿈·가·부인·학·동서(18)

노래·활동·지정부.....  
 .....을지영(17)  
 우리 나라 구정(경주).....(20)  
 그림 세기·소학지.....(22)  
 우리 학교 작품 (서울 여중)  
 .....(23)

★우리 학교 표지(중앙 일지)  
 .....(9)  
 ★자질거리의 발견.....(10)  
 ★우리 학교.....(27)  
 ★소학생 작품집.....(24)  
 ★우리 공부.....(25)  
 ★거리의 세소리.....(16)

○우리 나라 전기.....양미림(8)  
 ○우리 나라 신문 역사.....  
 .....최순(24)  
 ○중화일 주정.....주소영(27)  
 ○원정 표지.....김계혁(23)  
 ○원정 표지.....(16)

이전 판 감상.....(11)  
 열한 박사.....(28)  
 가난을 만나다.....(26)  
 출판 데 왔기.....(26)  
 안과·우물기.....이성문(18)  
 소학생 구약부.....(12)  
 만물과 나의.....(13)

★그림 그리실 분★  
 장현웅·최지환·최기상  
 조병기·최수진  
 정장그림.....김익동

# 소학생

☆ 1 월 차 ☆



(장현웅·그림)



해결무렵 시원스럽게 불은 가을 하늘에는 가을 바람을 안고 꼬글꼬글 연꽃이 날고 있습니다.

이따금 가을 바람은 북으로 북으로 하얀 구름을 덮고 달아 나니바.

꼬리가 길죽한 연, 봉그런 연, 비모난 통연, 우리 나라 애국기를 그려 넣은 연, 서로 다루는 뜻이 날고 있습니다.

아마 파란 가을 하늘은 연꽃의 운봉장일까요.

모름달 같은 호박 명구는 물담을 밑에 식이는 조그맣고 앉아, 물대나무 한 그루 오른쪽 의로이 혼자 서 있는 연대 길 위에서 집이 나뉘어 입을 울리고 있는 박우, 잠들어, 철성이, 개동이를 무뎠은 듯한 얼굴로 명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투 형아가 있으면 저런 연 접어 주면만, 아나 저것 보담 더 큰 연, 하늘만큼한 연을 접어 가지면만……)

식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 하며 까만 배 꼬깃꼬깃, 가을 웃고름을 때만저 봅니다.

식이의 웃고름에는 아파가 울름 아파사망으로 돈말이, 며날 때 주고 간 돈 1원짜

미 종이 돈 두 장이 푹푹 배여 있습니다. 임마가, 방울장수, 할머니가 와서 잔뿔 사며 고 말레보, 서당집 개동이가 평양서 사 온 그림책 주며 옛 사 먹제도 안대놓은 돈, 함석집 앞을 지날 때마다 팔며고 먹음저하게 식은 노오 탄 문패가 마루에 놓여 있는 것도 사 먹지 않고, 절을 끝내 삼키면서 머뭇머뭇 다른 쪽으로 둘러보고 땅-다들박질러 지나의면서 안사 먹은 돈.

아파와 떠나면 날 식이가 울며울며 떠나는 아파의 마지막 물어 잡고, "아파야 개떡따" 말피뭉치고 우는 바람에, 아파는 두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띄어 가지고, 식이의 웃고름에 배어 준 종이 돈 2원사였습니다.

그때 식이는 굳게굳게 절삼하였습니다. 아파가, 돌아 오는 날까지 꼭 웃고름에 이 돈을 간직하며라고—

(아파가 떠날 때 난 두 원이나 접어 달

라고 할걸! 이 돈 두원 식이가 연을 팔까?)

그러나 이제까지 간직한 돈을 이제 웃고름에서 줄피서 철성이 연을 사기는 마음이 업사며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연꽃은 꼬글꼬글 솟구면서 식이를 손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 박우의 연이 식이 목 끝어졌습니다. 연대 위에서 박우가 황급히 뛰어다오 소버렸으나, 실 끝어질 박우의 연은 못갈은척 꼬터져며 푹푹 하늘로 바람에 사정 없이 떨어 갔습니다.

북쪽으로 흘러 가는 박우의 연을 한참 바라보다 식이



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써 일어섰습니다.

식이는 단숨에 불계천을 잠중 뛰어 넘고 숲이내 길 끝길을 힘-들어 오미막 언덕 길을 찍찍거리며 언덕 위 칠살이한테 달려 왔습니다.

“너 언 할판?”

“얼마 줄래?”

식이는 웃고몸을 풀어 돈 2원을 칠살이를 보였습니다.

칠살이는 식이의 손바닥에 놓인 돈 2원하고 제 연을 번갈아 보이며

“그 돈 너 얼마 할면 꾸중하지 않니?”

“알 없어.”

칠살이는 미그레 웃으며, 식이의 손바닥의 돈을 움켜 쥐었습니다.

식이는 돈 2원을 칠살이에게 주고, 칠살이께서 대극기가 그려진 연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칠살이는 매마칠 마을쪽으로 옛장수가 지나는 길 보고 물이나마 달며 내며 갔습니다.

식이는 자꾸자꾸 칠새에서 실을 풀어 주었습니다.

개봉이랑 짝들이는 바우가 연을 노친 것을 보고, 그만 울먹고 실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우의 연은 어느새 어디론지 사라져 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을 잃은 바우는 스스로 대 돌베나무에 기대 서서는

이런저런 식이의 연 울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식이는 정신 없이 칠새의 실을 풀어 주니 연은 마음대로 생생 하늘로 북북으로 밀려밀려 밀어지 갑니다.

칠새의 실도 다 풀리어 맹송하게 칠새만 남았습니다.

“앗!” 보고 싶던 마수 짝들이 재봉이는 연을 마 밀렸습니다.

식이는 실을 꼭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실 끊어진 연



은 마음대로 꼬물꼬물 줄주며 북북으로 아무의 아무의 짝마루히 사라져 갑니다. 연은 산 넘어 하늘로 흩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식아, 너 왜 연 띄워 보냈니?”

“오래 가지고 놀지도 않고……?”

바우 짝들이는 식이한테 다가서며 물었으나 못말은척 해주며 “없이 식이는 집싹을 벗어 놓고 거기 서 있는 돌베나무에 재빠르게 올라 갔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 가면 산 넘어 가는 의줄기 권도 팔리 볼 수 있습니다. 마을로 구석 구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식이는 높은 데 오르면 산 넘어 하늘로 떠 가는 제 연도 보일 것 같아서 올라 갔던 것입니다.

“얼아! 얼아! 할라 북북 나마로 가라!”

식이는 나무 위에서 웅얼거립니다.

(가다가다 밤이 되면 빌나 다 밀집에서 하룻밤 자고 우

미 아파 일하는 북북나마 일러 위에가 나미러 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파는 일하다가 말고 말아 보고 대극기가 그려 있는 것을 보고 “오오 조칠서 띄워 보낸 연! 조칠의 아시들이 보내 준 연!” 하며 좋아 하질 것어다)

참 식이는 연에 다 실만 식이라코 벽으로 쳐 붙일 것을, 그랬더라면 식이 아파서는 식이가 날며 보낸 연인줄 알 것을—

식이는 주부부 흐르는 눈물을 든 풀린 웃고몸으로 썼었습니다.

어느새 저녁 해는 끝막 산 넘어 저쪽에 떨어지고 큰 누나 꽃가마 타고 가면 강 건너로 가는 길에 어두워 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 달며 와 돌베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데, 그냥 식이는 돌베나무 위에서 앉아 있습니다.

★지은 분 소개★

윤 동주 선생은 1917년 12월 30일 안주 감도정 '원길현 명동촌'에서 나셨습니다.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 동지사 대학

에서 공부하실 때에, 사강 황계모 강할에 불운비오년 언도를 받고, 북강 령무스에서 철역살이를 하다가 병에 걸리셨는데, 관육에서 이상한 추사를 맞고 1945년 8월 16일 드디어 세상을 떠나

셨습니다. 선생은 재주가 뛰어나 분으로 시(詩)를 잘 지으셨으며, 풍요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풍요 중에서 새 편을 수십 여편 문에게 소개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편집필)

동요      해바라기      얼굴      윤      동      주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누나의 얼굴.

해가 금방 뜨자,

얼굴이 숙어들어

일터에 간다.

집으로 온다.





## 산 울림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  
아무도 못들은  
산울림.

까치가 들어서  
산울림.  
저흔사 들었다  
산울림.

## 햇빛 · 바람

손가락에 집. 발러  
쏘옥. 쪽. 쪽  
장에 가는 엄마 내다보려  
문풍지를  
쏘옥. 쪽. 쪽

아침에 햇빛이 댕작.

손가락에 집. 발러  
쏘옥. 쪽. 쪽  
장에 가신 엄마 돌아오나  
문풍지를  
쏘옥. 쪽. 쪽

저녁에 바람이 솔솔.



(그림 · 정 영웅)

# 우리 나라와 전기 (電氣)

楊 美 林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전기(電氣)를 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899년 4월 8일 부터였습니다.

물부안이란 미국 사람이 조그만 화력 발전기(火力發電機) 한 대와 몇 배의 전등을 가지고 들어 와서 그때의 한국 정부로부터 서울 시내에 전차 놓는 허가를 얻어 그 공사가 다 완성이 되어 전차가 달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는 일반 백성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놓은 걸보다도 임금님이 청량리(淸涼里) 휴궁(陵)에 참모(參謀) 가실 때에 편리 하고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세력들과 청량리 사이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이 거리의

괴물(怪物)을 그때의 서울 사람들은 한편 무시워라기드 하고, 또 한 구에 5전씩 내는 전차 값이 비싸게 생각되어 타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전차 회사에서는 다시 더 사업을 하여, 서울 시내에 전동(電燈)을 끼기할 계획을 세워, 2년 후인 1901년 6월 1일부터는 전 시내를 통하여 모두 6백여 개의 전등을 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전기 사업은 전차가 먼저 놓이고, 다음으로 전등들이 켜진 것입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이보다 훨씬 전부터 전기가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로는 쓰이지 못하였으 며, 역시 전

등의 전차가 고착이 있었습니다.

전기는 오늘날 모든 광명의 어머니로서, 이것이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낼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물론, 모든 산업이나 과학 시설에 필요라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에 쓰이고 있는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일으키며,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기하면 으레 석탄(石炭)을 태어 증기(蒸氣)를 내게 하여,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서 전기를 일으키는 소위 화력 발전(火力發電)이었으나, 그 동안에 계속되는 높은 비용을 면치하기 위하여 물의 힘의 원리를 이용한 즉 수력 발전(水力發電)으로 후차 바뀌기 시작하여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거의 전부가 이 수의 발전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세(地勢)는 대개의 수력 발전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있어 현재 동양 제일의 수력 발전 중이며 앞으로도 많이 발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유감인 것은 그 수력 발전의 자원과 조건이 대부분 북조선에 몰려 있어, 33선이 가로 막혀 있는 오늘날 남북 사이





에는 여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8 이남에도 수력 발전소가 무척 군데 있으나, 압록강(鴨綠江)의 수중(水憵)을 비롯한 무전강(無田江) 강령강(長嶺江) 회천강(廻川江) 부령강(富寧江) 등의, 북조선의 여러 수력 발전소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대부분은 38 선을 넘어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북 조선을 통하여 현재 얼마나 되는 전기가 쓰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움직이고 있는 발전 설비로는 약 50만 "킬로와트"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수에 귀하고 있는 발전소도 적지 않으며, 더구나 앞으로 수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만한 희망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활용되는 날에는 우리 "인상 생활"은 물론 지하 철도도 전부 전기화하도록 남아, 만주 북서(北西) 같은 곳으로 전기를 보내어 나라의 수입을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래의 일이고, 오늘 현재 형편으로는 남북 조선을 통하여 발전소 설비를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와 재료가 부족하여, 막대한 수량의 전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남조선은 38 이북의 북조선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에 마지 만 허다 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전기를 보내며, 그러나 비



## 충남 전의 국민 학교

우리는 이 고장의 싹을  
 솟고 솟아서 힘 세 없이 솟아서  
 감이 되어 흐르면 저 멀리 퍼치네  
 우리는 전의의 아가 전의의 빛  
 우리는 조선의 일군 조선의 해

우리는 이 고장의 꽃송이  
 피고 피어서 그지없이 피어서  
 둥기 따라 벌으면 이 감산 빛내네  
 우리는 전의의 아가 전의의 빛  
 우리는 조선의 일군 조선의 해  
 (박 노준 지음)

싼 값을 요구하니 통일 독립 못할 선상이 여기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가는 캐나다·미국·스위스 같은 나라일 때 그때같은 국민 한 사람 앞에 평균 10 "킬로와트"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보급되지 못한 나라는 인도와 중국일 때 한 사람 앞에 1 "와트"도 못되는 1천 대의 1 비율입니다.

우리 조선은 대단 한 사람 앞에 평균 10 "와트" 가량 되지 않음과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 대면 밀렸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소비량이란 것을 단순히 가정에서 쓰는 것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철도 공장 등을 비롯한 산업

발전의 큰 소비가 없이는 국민 한 사람 앞에 평균율이 좀 처럼 올라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나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의 전기 보급이란 것은 가정 사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보다도 그 나라의 교통이나 산업의 발전을 더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풀이 우리 나라의 전기 사용량을 살펴 생각해 보면, 전차로 보아 발전은 거의 전부가 북조선에서 되나 소비는 중부 이남이 많으며, 도회지와 농촌의 구별도 따지 보면 농촌은 아직도 전 등불을 구경도 못하는 곳이 적지 않으며, 등불의 혜택을 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더오"도 들을 수도 없은 것이며, 정미(精米)나 양수(揚

水) 같은 농사에 필요한 데  
에도 못쓰는 것입니다.

도회지의 공업 차대에서  
공업 생산에도 전기를 많이  
쓰므로하여, 산업을 발전시키  
고 앞으로는 우리 조선에서  
는 농촌 구석구석에 까지도  
전기가 들어 가게 하여, 산업  
과 문화가 아울러 발전하도  
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는 그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것인 반면에 그것을  
잘 쓸 줄 아는 지식과 기술  
이 매우 필요하여, 일본 사람  
들이 물러 가고 난 뒤에는  
발전(發電)·송전(送電)·변전  
(變電)·배전(配電) 각 부문  
의 전기 기술자가 매우 필요  
하게 되었으며, 또 한편 일반  
으로 가정에서도 전기에 대  
한 상식이 부족하여 잘못 쓰  
거나 함부로 쓰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해방 후에 적지  
않습니다. 덮어 놓고 몽연히  
무서운 것 위협한 것으로만  
알 필요도, 없으나, 충분한 지  
식과 기술이 없이 함부로 고  
압전(高壓線) 전주에 오르거  
나 집안에 배선(配線)을 하  
다가 감전(感電)되는 일이 없  
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쓰고  
있는 일반 가정용 전동선의  
전기는 60 "짜이플" 100 "볼  
트"의 교류 전기(交流電氣)  
이므로 "라디오"나 전동기  
(扇風機)나 "모오터"나 전  
기 냉장고(冷蔵庫)를 살때에  
는 그 규격(規格)의 표시를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며, 외  
국제라고 하여 모두 좋은 것  
으로만 알고 샀다가는 우리  
나라의 전기와 맞지 않아 소  
용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  
습니다.

근래 각지에서 전기가 깔  
어져 캄캄한 밤새지를 걷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은 규  
정된 용량(容量)을 넘겨 써  
서, 전주 위에 매달려 있는  
검은 기름통 즉 주상변압기  
(柱上變壓器)가 타 버려, 거  
기서 갈매·불이 간 집 전부  
의 전기가 끊어지는 것이며,  
전기가 아주 끊어지기까지  
는 암더라도 전기가 약하면  
등불이 흐리고 "라디오"가  
잘 들리지 않고 "모오터"  
가 퉁퉁히 돌아 가는 것은,  
"암페어" 수가 늘어 즉 많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  
(電壓)이 떨어지 전기의 량

이 조금보다 훨씬 약해진 등  
기안주, 전기를 주리 써서 전  
압을 모로 올리거나 큰 것으  
로 고쳐서 쓰지 않으면 으레  
지 않아 그나마 끊어지기 쉬  
울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량으로 "라  
아빈"이란 물수레를 돌려 "그  
것에 연결한 발전기가 따라  
돌아 전기가 일어나면, 강판  
전기 그대로 전기를 쓰는 곳  
까지 고압선으로 보내면, 변  
전소(變電所)에서 그것을 낮  
아, 전동용 동력용(動力用)으  
로 갈아서, 다시 각 가정이나  
공장으로 보내는데, 도중에  
전주 위에서 다시 한 번 초  
그만 변압기를 통하여 적당  
한 제한량의 전기가 들어가  
비로소 쓰이는 것인데, 이 일  
과한 전기 공급에 1 분 1 초  
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  
기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모불이 언제나  
고동만 들면 불이 나오듯, 스  
윗치 하나만 비물면 전기가  
언제나 끊어 오게 되는데, 거  
기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거쳐서 되는 것을 잊  
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 ☆어린이 파티☆ 자전거의 발명

누래 위에 타고 앉아서,  
그 수레 바퀴를 돌리려고  
한 것은, 벌써 수 천 년 전  
에, 파비론이나 에침프에  
서 생각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전거  
의 시초라고 할만한 것은  
1779 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160 년 전에 폴란드 사  
람 부탄자아드의 마그리에  
부르트가 발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발로 땅을 밟아 가  
는 것인데, 빠르기는 사람  
이 걷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로  
부터 40 년 가량 뒤인 1817  
년에, 독일 자오새부부른이  
관 사람과 조금 후인 1821  
년에 영국의 콘과아데이라  
는 사람이 따로따로 이것을  
개발해서, 앞 수레에 한도

두를 달아 바로잡게 하였  
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수  
레 위에 전차 앉아서, 발로  
밟는 땅을 밟는 잠시동안  
은 저 혼자 달리곤 하였습  
니다. 그 이름을 "관데이  
호오스" (뱀장어 발)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 때 사  
람들은 사람이 다는 것은  
발, 뿔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은 영국 사람 도에일이 발  
명했다고도 합니다.



# 무열왕 (武烈王)

황 수 영

위대한 시대(時代)는 위대한 인물(人物)을 낳기도 하거니와 이와 반대로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천 3백 년 전 우리 반도 안에는 북에 고구려, 남에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서로 겨루고 있어 떨지 않아 하나로 뭉쳐 지는 기운이 농후한 중대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대에 신라의 운명을 부 위해서 일어나 사람은 신라 (29 대의 무열왕)입니다. 앞으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왕의 특색이 기상을 느끼는 듯 하지 않습니까? 왕은 오랜 세월을 두고 준비하여 오던 모든 나라(國力)와 충성한 국민의 일치 힘을 배경(背景)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 당나라의 군사들

밀어나가 왕의 7 년(단기 2993 년 시기 660 년) 백제를 쳐 무치고 마침내 신라의 손에 의한 반도 통일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왕의 능 앞에 남아 있는 비석의 거북과 비 머리(비 몸은 없어졌음)에 새겨 있는 여섯 마리의 용(六龍)을 보면 모두가 살아서 꿈틀거리듯 한 기운을 느껴졌는데, 그것은 곧 왕과 그 시대의 역세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능 주위의 소나무는 푸르고 또 푸르며 새 눈이 부실 듯 합니다. 그 푸른 숲안은 삼국 통일의 빛나는 종과 후대 민족의 무궁하고 깊은 생명력(生命力)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 분! 결국 이 땅을 가시면 꼭 무열왕 능에 참배하여 왕의 거룩한 통일 사업을 깊이 생각하여 모십시오.



# 이거 참 심상

춥을 들고 다닐 때에는

초에 불을 켜 가지고 다닐 때에는, 바람에 불이 꺼지기 쉬우므로, 누구나 손으로 불 앞쪽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효과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림자 같이 뒤편 손으로 막으면 이상하게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 불을 오래 쓰는 법

무 마는 때는 불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산에나 들에 갔을 때에는 더욱 불이 귀한 줄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불을 잘 간직해서 오래 쓰도록 합시다. 불을 쓰고 나서는 반드시 마개를 꼭 해서 잘 덮습니다. 불이 꺼지면 마개를 꼭 두면, 밑에서 열기가 나지 않고 또 불병도 쉬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대 삼천 소년○

# 少年三國志

박 대원 지음  
김 기영 그림

## 제일장 도원결의 (桃園結義)

### 一 불행한 시절

중국 한(漢)나라 말년—  
지금으로부터 1700 여 년 전  
이다.

이 나라 백성들은 심히 불  
행하였다.

당시의 임금인 영제(靈帝)  
란 이다.

영제는, 바음이 그다지 악  
한 임금은 아니다. 그러나, 다  
만 천성이 지극히 어리석었

다. 그는 무능(無能)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모  
무지 몰랐다.

나라의 임금 된 사람은, 마  
땅히, 백성들의 아픈 것 기로  
운 것을 알아 주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원통  
고 읊주머니 않게 하려 주  
나?”

“어떻게 하셔야 백성들을 원  
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  
여 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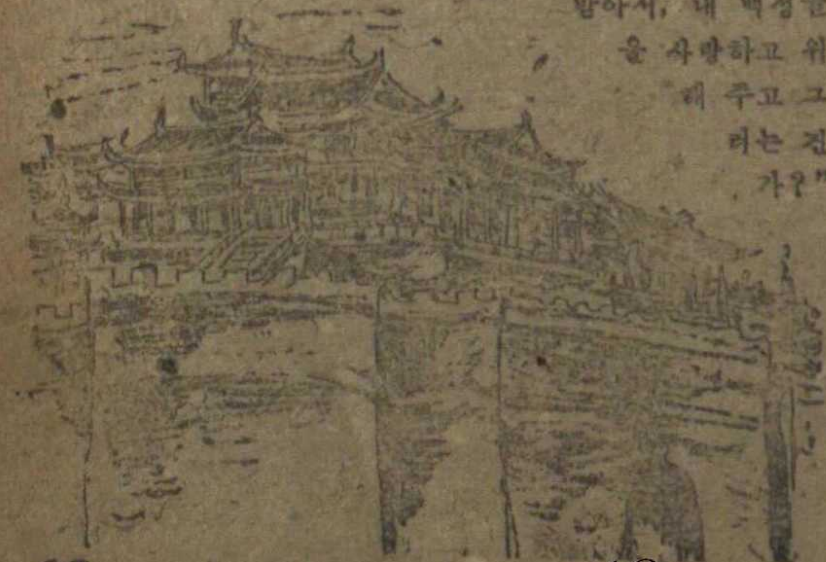
“내 신하들은 모두 내 뜻을  
받아서, 내 백성들  
을 사랑하고 위  
태 주고 그  
러는 건  
가?”

이처럼, 전나(前)나라 백성들  
생각을 하여 주어야만, 비로  
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  
이 평안한 될런데, 영제라는  
임금은 결코 그렇지 못하였  
다.

이 임금은, 나라의 백성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술 먹고  
놀기를 좋아 하였다. 자기들  
모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 줄  
어질 신하들은 위할 줄을 모  
르고, 적적계, 환관(宦官)의  
무마함을 전임하고 사랑하였  
다.

환관이란, 곧, 내시(內侍)  
다. 내전 안에서 조적 시종  
이나 끌고, 삼부름이나 하  
고 문이나 지키고 또 소제  
나 하고 그러는 아주 낮은  
관원들이다. 이 환관들을  
영제는 유달리 사랑하고 신  
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는, 막중한 나라 경사에까  
지 간섭을 하게 비뚤어졌  
이다.

영제는, 이자갈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그대로 믿  
었다. 이자갈의 말이 다면  
무엇이나 물어 주었다. 이



자물이 술다면,  
 곧 술은 술이었  
 고, 이자물이 그  
 모다면, 바로,  
 그돈 술만 여겼  
 다.

착하고 어진  
 선하물이, 제 아  
 무더,

"상감마마. 부  
 너 이렇게 합  
 시오. 이렇게  
 하시야. 합니  
 다"

하고 간경히  
 권하여도, 관관  
 물이 하지 말라  
 면 안하였다.

장발로 나라를 근심하고 백  
 성을 사랑하는 선하물이, 제  
 아무더,

"상감마마. 제발 그러지 말  
 시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고 입이 아프게 간(諫)  
 하여도, 관관물이 하려는 일  
 이면 꼭 하고야 말았다.

이느 틈에가 팔감물은 모  
 든 권세를 흉악 저의 손에 잡  
 아 버리고 말았다. 모든 권세  
 를 저의 손에 잡자, 이자물은  
 대저, 안하는 것이 없다. 함  
 부로 백성들의 정물을 빼앗았  
 다. 돈을 받고 비술을 팔았다.  
 저의끝까지 건한 자는, 죽을  
 죄를 지은 놈이라도 그냥 버  
 러 두었고, 저의를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설혹 나라의  
 원로·대신(元老·大臣)이라  
 할지라도, 혹은 귀양 보내고,  
 혹은 죽였다.



이미하이, 조정에, 어진 선  
 하는 자라 물러 가고, 오직,  
 관관물에게 아첨하는 무더들  
 만 남았다. 나라 정사는 나날  
 이 갈려만지고, 백성들의 원  
 망하는 소리는 술아 갔다.

과연 억지러운 시절이다.  
 어려운 세상이다.

—백성들은 심히 불평하  
 였다……

## 二 황 전 적

(寶·巾·殿)

이때, 거록할(銀鹿部)에 장  
 각(張角)이라 하는 자가 있  
 었다.

그가 일찍이 산에 들어가  
 서 약을 캐다가 한 노인을 만  
 나니, 노인은 장 각을 앞으로  
 물러 세 제 권을 내어 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것은 태평요술(太平要  
 術)이라는 책이니, 곧, 이

속에는 세상을 편안히 하  
 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  
 는 도리가 써여 있느니라.  
 내, 부어,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세상 사람을 구하여  
 주거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해주만 믿고 즐기 않은 열  
 을 행할 때는, 반드시 너의  
 몸에 큰 재앙이 미칠 것이  
 니. 그리 알렸다!"

장 각은, 그 이상한 노인  
 의,

"삼가 가르치심을 저마리지  
 않으오리다"

하고, 잘하여 행세하였다.

노인과 헤어져 집으로 올  
 아 온 장 각은, 밤과 낮을 배  
 아리지 않고, 그 책을 익혔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책에 써  
 여 있는 것은, 회탕관 제주를  
 다 배워 알았다.

말끔 그대 사혈에, 나라 안  
 에 전염병이 크게 돈다.

장각은, 즉시, 저의 노호(道號)를 대현양산(大顯良山)이라 하되 제상에 나서서, 책에서 배운 대로 부적을 써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상하게도 그 부적을 붙여 놓은 집에는 병이 들어 가지 않았다. 오래 앓던 사람도 썩은 듯 명이 났다.

소문을 건하여 듣고, 백성들은 서로 다투어 그 부적을 받아 갔다. “대현양산 장각”의 이름은 금시에 되었다. 전고에 없는 성인(聖人)이 나오었다고, 그의 제자가 죄자를 원하는 자가 나날이 늘어 갔다.

이에, 장각은 저의 제자들을 시켜서, 각처로 돌아다니며, 다음과 같은 말을 외설리게 하였다.

“이해에 세상이 바로 잡히고, 모든 백성이 다들 잘 살게 될 것이니, 칩집이 배운 위에다 갑자(甲子)라고 딱 토(白土)로 써 놓아라.”

장각에게 아주 혹(惡)한 백성들은, 너도 나도 배운 위에다 ‘갑자’라고 써 놓고,

“대현양산께서 이제 죄상을 바로 잡아 놓신다.”

“그 어른이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하여 주실란다.”

하고, 이서 하루 바쁘게 그 말이 이르기만 고대하였다.

이렇듯 백성들이 저를 따르는 것을 보자, 장각은 파림대 저의 누아우, 장보(張寶)·장량(張亮)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섰다. 남미를 일으켜 섬들을 돌아 내고,

제가 대신 황제가 되어 영화(榮華)를 누려 보자는 것이었다.

대현양산 장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섰다는 말이 한 번 전하여지자, 그를 팔팔 하늘처럼 믿고 있던 백성들은 와아하고 일제히 배를 지어 일어났다. 그 수가 실로 사오십만 명이다. 모두 머리를 누를 수적으로 쌓 매니, 후세(後世)에 말하는 황전적(黃巾賊)이 바로 이것이다. 장각이 거느리는 황전적의 남이르 하니, 세상은 그들로 일컬어 버림하고 받았다.

나라에서는 갑작 놀라, 즉시 ‘군사를 내어 보내서 죄자를 잡았다. 그러나 원래 황전적의 형세가 크다. 관군(官軍)만 가지고는 당대 번말 도리가 없다.

이러하일 마칠때 나라에서는 각처에 황문(榜文)을 내어, 별의 의병(義兵)을 모집하게 되었다.

### 三 도원 결의 (桃園結義)

이때, 탁현(涿縣)이라는 고을에 유비(劉備)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실종전(漢室宗親—임금의 일가)으로 자(字)를 현덕(玄德)이라 한다.

이 사람이 신장은 팔척이요, 키가 유난히 크고, 팔이 길며 얼굴은 옥 같이 흰데, 천성이 저극히 너그러운고, 또 팔이 적다.

한실종전이라고는 하나, 김

은 가난하였다. 어머니 아버지를 여읜 뒤로, 그는 자기를 잘고 실을 알아서, 돌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마음에는 은근히 큰 뜻을 품고 있는 그였다. 황전적이 난리를 일으키어, 세상이 한참 소란할 때, 하루는 어머니 나가니, 의병을 모집하는 방문이 붙어 있었다.

유비가 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토하여 나가, 두군씩 등 뒤에서 큰 소리로 탄탄히 한다.

“대장부가, 나가서 도둑을 치려고는 한라고, 썩 한숨만 쉬고 있소?”

물어다 보니, 그 사람이 신장은 팔척이요, 얼굴은 옥 같은 것처럼 희고, 눈은 모퉁이가 둥글고 큰데, 기세가 바로 장하다. 유비가 그의 심정을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나는 장비(張飛)라는 사람으로, 자는 익덕(翼德)이요, 내, 본디, 조견(趙堅)의 글과 사귀기를 좋아하는데, 봉(公)이 방문을 보고 한숨을 쉬기에 한 마디 붙어 본지요.”

“그러시오? ……나는 유비라는 사람이고, 나가서 도둑을 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오마는 다만 힘이 자다지 못하여 그에 한숨을 지었소.”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소. 내가 담마시거나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 이 고을 장정들을 뽑아서 데리고,

같이 도복을 치러 가던 이  
명짓소?"

윤 비는 크게 기리하여, 곧,  
장 비와 함께 그 근처 주막을  
찾아 갔다.

두 사람이 쟁권을 잡고 앉  
아서, 마약 술잔을 붙였을 때  
다. 환 사나이가 주막 앞에서  
수레를 차리더니 안으로 불  
어 오며 주인을 보고 말한다.

"어보. 나 술 한잔만 할지 때  
어 주오."

"어머. 가  
실 것이  
바르실가  
요?"

"응. 의병  
뽑는다는  
말문을보  
고, 지참  
성(鎗)으  
로 끌이  
가는 것  
이오."

그 말에  
윤 비가 자  
세히 그 사  
람을 살펴  
어 보니, 전  
장이군처럼

수염의 길이가 두 자는 되어  
보이고, 얼굴은 푸르익은 내  
추짚이요, 풍(風)의 눈, 누에  
눈처럼. 상모가 당당하고 위  
풍이 늠늠하다.

윤 비가, 곧, 그 사람을 자  
기를 자리로 칭하여다 설명  
을 붙으니, 그는 대답한다.

"나는 하동(河東) 사람 산 우  
(關羽)로, 자는 윤장(雲長)  
이요. 우리 포항에, 편지를

받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 내, 잡다 못하여 죽어  
버리고, 그때부터 오륙 년  
동안, 딱히 저리 피해 다  
녔는데, 이번에 의병을 뽑  
는다기에 가는 길이요."

윤 비가 자기말의 생각을  
알리어 주니, 그도 기뻐하기를  
마지 않는다. 세 사람은, 즉  
시 여짜를 나말히 하여, 장 비  
의 집으로 갔다.



자리를 정하여 앉자, 장 비  
는 말하였다.

"내 침 위에 북송아 동산이  
있는데, 지금, 꽃이 찬랑 피  
어 만발이요. 내 생각 같애  
서는, 내일, 동산에서 허늘  
과 땅에 제(祭)를 지내고,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義  
兄弟)를 드은 다음에 도복  
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는  
데, 무슨 의함은 어리시오

?  
윤 비와 관우는 동시에 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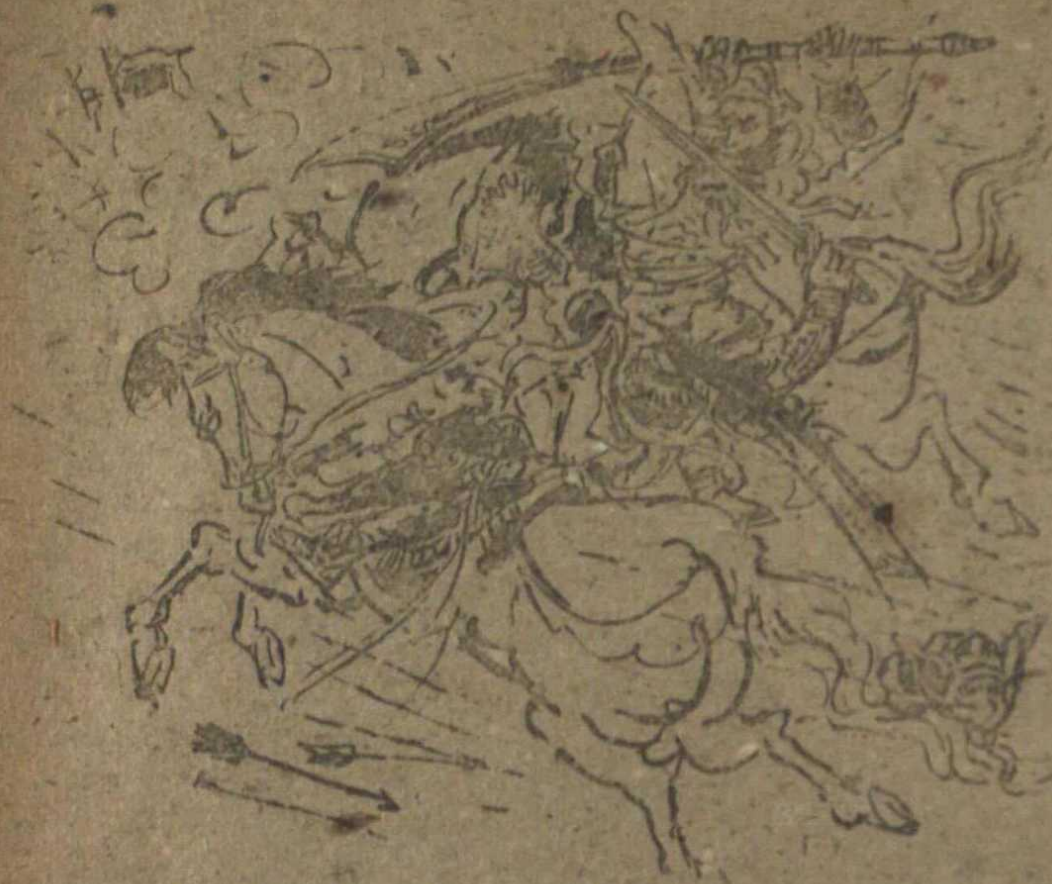
"그 참 좋은 말씀이요."  
이튿날, 북송아 동산에, 집  
은 초와 관 말을 잡고, 짚은  
제물(祭物)을 차려 놓은 다  
우어, 세 사람은 함께 분향  
제배(焚香再拜)하고 명세 지  
었다.

"자리를, 윤 비(劉備)·관 우

(關羽)·장 비  
(張飛)가 비  
복 성(姓)은  
다르오나, 이  
미 의(義)를  
맺이 형제가  
되었은즉, 동  
심협력(同心  
協力)하여, 위  
로는 나라에  
보답하오며,  
아래로는 백  
성들을 편안  
하기 하되, 동  
년 동월 동일  
(同年 同月 同  
日)에 나기를  
바라지 않사  
옵고, 다만 동

년 동월 동일에 죽기를 원  
하오나, 황천후토(皇天后  
土)는 이 마음을 굽어 살피  
시어, 만약 저희 세 사람  
 가운데 의리(義理)를 배반  
하고, 은혜(恩惠)를 잊는 자  
가 있삼거든 벌역을 내리  
죽여 줄소서."

명세하기를 마치고, 관 우  
는 윤 비에게 절하여 들배가  
되고, 장 비는 윤 비와 관 우



부장(副將)을  
한때에 형은 도  
독의 무리들은  
그때도 도망하  
기에 바를찾아  
다.

첫번 싸움에  
크게 이기고, 세  
사람은 장부한  
무리들을 앞세  
우보 성으로 불  
아 왔다.

이튿날 정주  
(靜州) 도부의  
공관(公文)이 왔다. 형  
전격이 성을 어  
우고 있어, 형

에게 차례로 걸타어 아우가  
쳐었다.

다시 손을 잡고 술을 두어  
고을 안에서 뽑아 내인 용사  
(勇士)오백여 명과 함께, 이  
날은 옥송아 능산에서 모두  
쉬하도록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부지런  
히 무기(軍器)를 수습하여 모  
든 준비를 마칠 위에, 세 사  
람은 오백명 장정을 거느리  
고 유주성(幽州城)으로 들어  
갔다.

#### 四 도독을 치다

그러자 며칠 거다지 않아,  
적장(賊將) 형 원지(程遠志)  
가 군사 오백 명을 거느리고  
쳐 들어 왔다.

유 비·관 우·장 비 세 사  
람은 태수(太守)의 영(令)을  
받아,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

가서, 도독의 무리를 대흥산  
(大興山) 아래 치었다.

“나를 배반하는 도둑놈이  
어찌하여 빨리 항복을 얹  
는꼬!”

유 비가 큰 소리로 꾸짖자  
절 원지는 크게 노하여 부장  
들 무(副將 鄧武)를 내어 보  
냈다.

장 비가 곧 장판자모(丈八  
蛇矛—장 이틀)를 뽑아 잘  
고 빈개 같이 내달아, 한 창  
으로 동 무의 가슴을 찔러 죽  
이니, 이를 보고 절 원지  
가 쌍도(雙刀)를 휘두르며 불  
소 말을 제쳐 나온다.

장 비가 바시 그를 맞아 싸  
우며 할 때 그보다 먼저 관  
운장이 청룡도(靑龍刀—관  
이틀)를 빛겨 잡고 내달아,  
익지 한 창에 적장의 머리를  
떼어 버리니, 주장(主將)과

가 심히 위태로우니, 곧 와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다.

세 사람은 다시 자현(自  
顯)하여, 군사 오천 명을 거  
느리고 정주로 갔다.

이모러 보니, 뜻 밖에도 도  
독의 무리가 많다. 유 비는  
삼십 마를 물머나 영대(營寨)  
를 세우고, 관 우·장 비에게  
말하였다.

“도독의 무리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아무래도 계  
책(計策)을 쓸 바가 없다.  
너희들은 각기 일천군(軍)  
씩 거느리고 산 라우기 배  
목(繩快)하고 있다가 계군  
소리를 군호(軍號)잡아, 원  
제히 나와서 쳐드무 하여  
다.”

약속을 정한 다음에, 이튿  
날, 유 비는 군사들을 이끌고 목  
치고 나가서, 도독의 무리와



장군 베푸다가, 거중 재하여 달아났다.

적군이 그 뒤를 한참 급히 쫓을 때, 산 언덕을 지나며, 유 비의 군중으로서 문복 제 금 소리가 요란스며 일어나더니, 그것을 군호 삼아, 원정으로써는 관 윤장이 군사를 물고 나오고, 오른 편으로써는 장 비가 달미 나오고, 거중 쫓겨 가던 유 헌덕도 다시 군사를 물이키어 일제히 돌아왔다. 도독의 무리는 크게 재하여 달아났다.

이러하여, 세 사람은 마침내 청주성의 예상을 물고, 온고을 백성들을, 거의 죽는 지경에서 구하여 내었다.

청주에 머물러 있다가 세 사람은 다시 도독을 찾아, 복록을 바라고 절을 버렸다.

절을 가지 이튿날, 못되어 문복 물으니, 잔 넘어로직 아우성소리가 크게 울린다.

세 사람은 즉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삼피어 보았다. 재하여 달아나는 적군의 뒤를, 급히 쫓고 있는 도독의 기호(旗號)는, 바로 도독의 피수 장 자이가 분명하였다. 세 사람은 말을 달리 난군(亂軍) 속으로 뛰어 들어, 한 마당 싸움에 도독의 무리를 물막쳐 버리고, 마침내 관군을 구하여 내었다.

이 때 환군을 거느리고 있던 장수는 중랑장 문 락(中郎將 董率)이다.

문 락은 꼭 죽을번 하였던 복숨이 살아 가지고 원적로

돌아 가자, 유 헌덕을 앞으로 불러 물었다.

"세 사람이 지금 무슨 벼슬에 왔노?"

유 비가, 세 사람이 모두 백신(白身—벼슬 안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문 락의 얼굴에는 억척히 업신어기는 빛이 있었다.

유 비가, 물러 나오자, 장 비는 크게 노하였다.

"우리가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서, 저의 복숨을 구하여 주었는데, 제가 이처럼 무례할 수가 있단말이요? 이 문 락이만 자를 죽여야만 내 분이 풀리겠소."

말을 마치고 장 비는 곰 칼을 빼어 날고 장막(帳幕)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이것을 보고, 유 비와 관 우는 잠적 놀라 그의 말을 잡았다.

"나마에서 내보내신 장수를 어떻게 함부로 죽인단 말이나?"

"그럼, 저놈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밑에 있어야 할단 말씀이요? 무를 형님이 기어이 그리시겠다면 나는 혼자서 다른 데로 가 버디겠소."

"우리가 죽고 살기를 같이 하자고 맹세 지은 뒤에, 서로 헤어지다니 말이 되느냐? 다 함께 떠날 때로 가기로 하자."

세 사람은 그날 밤으로 자기 수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도독의 무리를 쳐서 먹었다……

## 五 벼슬을 버린다

한때, 제상을 품으로 혼물이 놓던 황건적의 난티도 끝나는 날이 있었다. 장 각·장 보·장 망의 삼 형제가 차례로 죽고, 수하의 무리들은, 혹은 함부하고, 혹은 불붙어 떨어져 복숨을 도망하였다.

이 난티에 의병을 거느리고 나서서, 수십, 차 크고 작은 싸움에 유 비·관 우·장 비 세 사람이 세운 전공(戰功)은 참으로 컸다. 그러나 워낙 정사가 문란한 조정에서는, 을게 상(賞)을 내릴 줄도 모른다. 난티가 진정된 뒤 이때 지나서야 유 비는 겨우 안희현(安喜縣)이판 조력만 고을 원위(縣尉—원)를 하나 얻어하였다.

유 비는 안희현에 도임(到任)한 뒤로 백성들을 천차씩 치럼 사랑하였다. 다른 관원들은 으레 먹은 것으로 알고 백성들을 뜯는데, 유 비는 털끝만큼도 범(犯)하는 일이 없다. 한 말이 재 못가서, 온고을 안의 백성들이 모두 그의 덕(德)을 칭송(稱頌)하며, 절이러야 같이 따랐다.

이러구러 더 달이 되었을 때다. 저운저 등우(鄧鄧)가 이고을로 나리 왔다. 등우란, 문찰사(巡察使)다. 백성들 사는 향현이 어떠한가? 지방(地方)의 관원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혹은 못된 짓들이나 하고 있지 않은가? — 그러한 것을 살펴가

위하여, 임금의 명령을 받아, 작고을을 순찰(巡察)하는 관원이다.

그러나 나라 정사가 원재 문란하던 시절이라, 지방 관원들을 감독(監督)하여야 할 목우가, 제가 정말은 먼저 도둑놈이었다.

그는 안하람에 들어 오가, 관역(館驛)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유 비를 불러다가,

“네 어찌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느냐? 너 같은 탐관오리(貪官汚吏—부정한 관비)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관바탕 꾸짖은 다음에, 밖으로 불어 내었다. 목우는 뇌물(賂物)을 바라고 그 텅텅 생트림을 잡은 것이다. 뇌물만 받치면 무사할 줄은 유 비도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이 있나?……)

원 노릇을 네 달이나 하였대야, 백성들의 물결은 쌀 한 톨, 피천 한 잎, 건드리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있어서 중단 말인가?……)

하는 수 없으니, 그제 막하 사정이나 말을 하여 용서받길 바라다 하고, 유 비는 다시 관역으로 목우를 불러 갔다. 그러나 문책이가 글재물을 막고 붙이지 않는다. 두 번 세 번 가 보아도, 목우는 그를 만나 주지 않았다.

이날, 장 비가 마침 말을 타고 관역 앞을 지나려니까, 큰 늙은이 오목십 명어 붙어

가 모여 서서 문책을 하고 있다. 장 비가 그 까닭을 물으니, 늙은이들은 서로 다투어 대답한다.

“목우가 우리 사도님을 공인히 괴롭히려 하기때,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언고를 말씀하며 왔다가, 안에는 끌어 가 보지도 못하고 문책이한테 매만 죽도록 맞았습니다.”

말을 듣고, 장 비는 크게 노하였다. 고리를 부들부들, 이를 잘라부치며 그대로 안으로 걸어 들어 가니, 몇 명 문책이의 힘으로는 그의 앞을 막을 도리가 없다. 바로 대청 위로 올라 서며,

“이 백성을 해치는 놀아! 네 나를 아느냐?”

소리를 비쳐 같이 지르고, 장 비는 목우의 머리를 덤뎛 움켜 잡아, 그대로 대문 밖까지 끌고 갔다.

문 앞에, 말 배어 푸는 기둥이 있다. 장 비는 그곳에다 목우를 매어 달고, 옆에 걸걸이 늘어선 비늘 가지를 휘어서 매질을 하니, 세 번 때려 멧채가 부러진다. 새 가지를 휘어서는 또 치고, 또 치고…… 잠깐 사이에 땅 아래 흩어진 피를 가지가 스물이 넘는다.

이 때, 유 비는 동헌(東軒—선이 있는 집)에 홀로 앉아 근심중에 있다가, 이 말을 전하여 듣고, 깜짝 놀라 뛰어 왔다.

목우는 유 비를 보자 예절

“원대공! 화를 살려 주시우.”

유 비는 본래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다. 즉시 장 비를 꾸짖어 이질을 명수지 하였을 때, 마침 관우가 와 보고 말한다.

“원님이 그렇지 큰 공을 세우시고 겨우 이 고을 하나를 얻어 하신 덕에, 이제 모욕이 목우 다투에게 욕을 보시니, 이것은 못할 일입니다. 이번에 아주 목우를 죽이고 피술을 떠면 다음에, 고함으로 돌아 가시달리 보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유 비는 그 말을 듣지 여기어, 곧 인수(印綬)를 내다 목우의 목에 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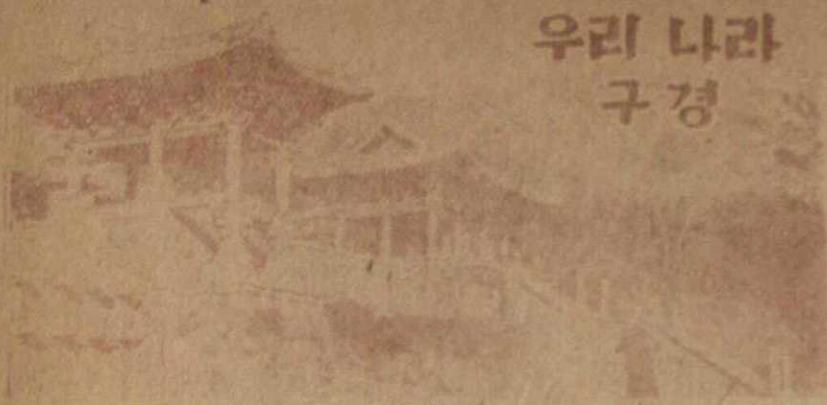
“네의 죄를 다스리자면 죽어서 마땅하다하는, 가련하여 목숨만은 붙여 준다!”

한 마디 꾸짖은 다음에, 그는 관우·장 비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계속)

○자(字)…… 유 비의 자는 원덕(元德)이고, 관우의 자는 용강(雲長)이고, 장 비의 자는 익덕(翼德)이라 하였다. 옛사람들은 이렇듯 이름 외에 잔라는 것이 따로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다 그러하여, 가령, 이 순신(李舜臣) 장군은, 순신이 이름인데 자는 여덕(汝諧)요, 이 퇴계(李退溪) 선생은, 이름은 관(諱), 자는 갈호(景浩), 퇴계는 그의 별호(別號)다.



# 우리 나라 구경



## I. 경 주 편

여러 분을 모시고 우리 나라의 수 많은 명소 코스를 구경 다니는 여러 분의 소학생활은 이제 오래지 않아 실학의 첫 자를 경주로 여러 분을 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구에서 거차도 갈아 타고 자력도 잡았으니 경주역에 닿기까지 국립 박물관 관장 김 세원(金載元) 선생님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조용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분도 다 알 하시라실이 우리의 명지 않아 다담을 경주라는 것은 실학의 역사였지만 못입니다. 실학은 바로 박희석(朴熙錫)과 지금부터 2000여년 전에 나라를 세우고 제 50대 왕 (高祖王)에 이르러 고려에게 쓰러지기까지 992년 동안에 걸쳐 이 곳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 동안 제 23대 임금 고국원왕(高句麗王)과 그의 아들 문무왕(文武王) 때에는 나라의 힘이 대단히 강하여 조선 만도들

전부 통일한 일도 있었으며 대구기 예술의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경주에 다시 보기가 드문 빛나는



① 아모령(阿摩陵)

경주에 당할만 있는 한으로 그 모퉁이 아모령과 구소의 특유함은 실로 신라 제국 초기의 발전 속을 잘 나타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나무를 자른 것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문화를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여러 분이 즐겨 들으시는 관왕 관찰이 독송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싸운 것도 이 때였으며 또 여자임금 신덕 여왕(善德女王) 제서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신 것도 신라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독립할 수 없고

인간국이 침주하여 그들의 힘을 빌려야 비로소 독립이 이루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이 같이 훌륭한 역사를 남겨 주신 것을 보면, 그들이 무슨 힘을 무슨 힘 주며 우리에게도 빌림 없이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훌륭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제까지 훌륭한 한글 속에서 우리의 기쁨 세우는 것을 거둬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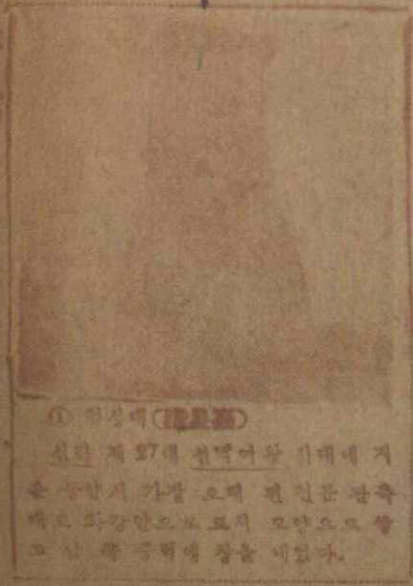
② 석가대(釋迦臺)

아모령 시대에 자주 있는 한이요 많은 문물은 신라시절에 건설되어 그 후부터는 문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의 문화 정도를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주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부적 노력을 격려하여 주는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주에 들어 가서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경주를 내려와 살펴 보니 솟아 있는 큰 무덤들입니다. 이것들은 그 때의 임금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볼 수가 그렇게 크다고 여러 분은 들으셨지요.

이 무덤들은 비단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은·보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큰 무덤 아래에 서 있는 또 그밖의 유물들을 보면 한 때는 대단히 큰 무덤을 만들었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은 이런 유물에서 멀어져 있는가 참으로 무망한 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눈에 띌 것은 경주



③ 경성대(慶星臺)

실학 제 27대 현명여왕 시대에 지은 유물로서 가장 오래 전 건물을 관측해도 의외일 정도로 보석 모양으로 잘 보인 채 궁궐에 잘 보존되어 있다.







# 우리 학교 작품



## 제1회 서울 매동 학교 치

서울 필운동에 있는 동교는 60년 전 즉 단기 4228년 7월 19일에 창립 되었고, 지금 온 재학 보강 작품 수 보강 이래 40명의 선생님이 계시고, 28 학급 2317 명의 생도가 있습니다. (기차)

### 별 동

5월 4 일 회 개  
 낮에 차고 밤이 되면  
 해이 나는 빛  
 초롱초롱 귀여운 눈  
 반짝일 적에  
 즐다가 떨어지는  
 아! 별 하나  
 낮에는 왜 못 보이고  
 밤에 좋았나?  
 즐다가 잠과  
 반을 빛다 보면

미끄러지 내리 오는  
 어린 별 아기  
 어느 나라 먼 나라  
 낮 실은 밤에  
 실어올 팔 자리에  
 흔들 시울까?

동무 잃은 별들은  
 포옹할까  
 알님 초롱-하모하모  
 더 밝히자  
 찾아왔나 못 찾아서  
 울고 가건만  
 아! 별은 빛도 없고  
 온 곳도 없네

## 내 동생

6월 1 이 송 우

내 동생은 나의 아홉살인데 국  
 민 학교 2학년이다. 세 살 때  
 스마 마마에 걸려 분별기도 바  
 뉘 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그러  
 서 다 크도록 일면 거이대어다가  
 자넬부터 암막에 지장을 잘  
 다너기 시작했는데 처음 얼마  
 알은 자르방이가 아파서 잘 다  
 너 못하더니 일찍은 익숙히서  
 평박결이나 후구이 또는 다른 보  
 용 아이들이 다는 손들은 지이 못  
 하는 것이 많이 되었다.

국년 불어면 님이 일어나. 제  
 네 녀에 내 동생이 학교 운동장



에 가서 지장을 잘 다  
 너 할이 잘고 있스니까 어떤  
 학생이 심술 짓게로 그 지장을  
 거저로 모양하여 해었다 내 동  
 생은 지장을 볼 때 하기도 할이  
 잘 수 가 있스니까 온두 후고  
 있었는

읽어줍니다.  
 사랑들은 참다운  
 줄이 가는데  
 나뭇잎을 주수주  
 흔들립니다.

## 산골의 저녁

제1회 서울 매동 학교  
 6월 1 이 송 우  
 설리다오 노코할  
 저녁 하늘에  
 짙은 빛이 기이기는  
 온드 갑니다.  
 바닷방 오고 가는  
 이 산골에는



저녁 노을 사오르  
 바닷방 오고 가는  
 산골의 저녁  
 온일 할일 떨어지고  
 걸어 가시는  
 바닷방의 그림자도

## 우리 애기

제1회 서울 매동 학교  
 6월 1 이 송 우  
 우리 애기 생겼오  
 아주 아주 생겼오  
 생일날엔 잘라면서



백 마칠 지나 가면 흰눈이 풍우  
가 보고 김씨부처 업어다 주셨다  
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반일 밤잠이 되거  
까지 하는 사람은 못만났더라면  
어찌 하였을까? 그 후부터 동생  
은 혼자서 먼 곳에는 가지 않게  
되었으나 나는 동생이 할부 처도  
방이네 자장이를 곁로 안으셨을  
동안에도 잠잠결정하며 학교에  
가는 모양을 보면 언젠가 그 때  
생각이 싹 싹 눈을 지워주는 것이  
다.


어떻게 그 동생의 바지를 고쳐  
줄 수는 없나? 언젠가 어떤 생  
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뿐  
그러나 내 동생은 모든 것을 떠  
려왔다고 언짢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꼭 김으로 타러는 것이  
를 알았다. 나는 길이다. 김지가  
할부 할부까지도 김으로 타러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 나 비

최 회 정

노랑 나비 흰 나비  
어디로 갔나?  
먼 나라 꽃 나라로  
가 팔렸나봐.

살살리전 내 마당에  
봄이 또 오면  
꽃나라의 고은 꿈을  
살고 오겠지.



는 모양은 꼭 우습게도 하다. 그  
후로는 소리를 잘 듣다 언젠가 어

머니에서 "학교가 좋은데 왜 복수  
를 하지 않느냐" 고 꾸지람을 하  
시니까 "언니들이 세치기를 해서  
어디 할 수 있어요?" 하고 직  
말. 편이 어머니를 웃기고 말았  
다.

그런데 내 동생은 공부 중이까  
도 산수와 음악과 미술 그림)을  
특별히 잘한다. 김씨 오면 제일  
즐거 하는 것은 도미와 그림그리  
기다.

시계, 양복장, 그리고 만다구리  
도 잘 그림다. 그래서 장래는 음  
악가나 혹은 화가가 되겠노라고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동생  
이 한 바퀴를 못 쓰는 형상이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도 작은하여  
상당도 내 동생이 그렇게 지어준  
은근이 아파도 앓다. (중)

청산은 어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야  
주야에 굶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 상강호리라.

도 화 6회 1 일 김 씨 6회 6 일 김 씨

아름다운 정취요



우리 애들 애려요  
아주아주 애려요  
물대중에 유락가도  
생글생글 웃지요

### 방 아 리

수유 학교 학교

6회 1 김 술기

백악 백악 방아리  
노란 방아리  
엄마 품에 죽 안겨서  
잠을 자다가  
깨어는 또 다시  
백악 백악 백악  
백악 백악 방아리

김씨 방아리  
엄마가 꼬꼬라  
부르며는  
마음이 모여서  
백악 백악 백악





### 달걀 비행선

종종으로 크고만 구멍을 뚫어  
 두 알맹이를 꿰어버린 달걀 껍질  
 이 비행선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두 개의 달걀 껍질을 준비해 자  
 커프, 그것을 그림과 같이 잘라내  
 세 장을 두 개의 "호오오" 작음  
 줄에 꿰달시다. 그러면 벌어지지  
 않고 두 자는 철사로 달걀 껍질  
 껍을 잡아싸야 하며, 달걀 밑에도  
 비행선의 선장이 될 것을 꿰달아  
 놓게할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선  
 장은 동시에 기관부를 겸하는 것  
 이고, 또 거저서 물을 이르게  
 않으면 안되므로, "생존"도 밧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으며, 크고  
 만 그곳을 만들어서 꿰달아야 합  
 니다. 다음에는 달걀 껍질을 붙여  
 마룻판에 올려가지고 한 줄 속에  
 달그림, 속의 물기가 빠지도록  
 서 일게 세워두어 있게 합니다. 그  
 것은 뜨거운 물  
 간을 갑자기 쪄  
 붙여 막치게  
 서, 그 개질(黏  
 粘)이 붙었다  
 붙었다하게  
 위한 자라입니  
 다. 그러는 다음  
 에 물을 달걀 속  
 으로 넣어 물이  
 가게 되므로, 이  
 편에는 두 개의  
 "호오오"가 붙진 한 기계 같은  
 "권"을 막고, 그것을 번 아가되  
 있는 곳에 바피 놓기 위해서 달  
 이 의도부 따위를 잘 잡아와 놓  
 습니다. 이것은 "권"이 나중에 달  
 장이 돌아가는 법 아무 말이 없



쪽 귀속의 기구(機)이 되는 것일  
 니다. 이것으로 준비는 연을 꿰  
 는데 알맞을, 크가 "호오오"의 작  
 음을 한데서 가도 꿰달아 두  
 두 개가 서로 벌어 꿰오오 그 개  
 지의를 슬러도 있게 꿰달아  
 특히 주의하길  
 시오면 이곳에  
 기관부가 되는  
 그곳에 연이  
 두 개를 꿰어  
 두 개가 한데서  
 또, 직접 손을  
 꿰고, 그것의 물  
 을 꿰입니다.  
 그러면 물을  
 다와서서 소  
 를 내며, 달걀  
 구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게  
 작하게 됩니다. 이따위와 그  
 편으로 비행선은 새로 만들어  
 는 것을 할라야, 기운 작게  
 가가 작하게는 꿰입니다.

### 플런에 칼기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앗! 이상합니다."  
 만일 플런데가 있으면 보러보십시오.  
 사실은 몇 다섯 글에 플런데가 있습니  
 다 무엇무엇일까요?





5. 코끼리

요약

잔디밭에 앉아서, 사 가지고 왔던 청삼을 먹고, 천천히 저편쪽으로 가니, 코끼리 한 놈이 이슬땀이 흘려 오고 있습니다. 모두 멀거리니, 이 크나큰 코끼리를 바바다 보고 싶는데, 코끼리는, 다른 사람같은 본체만 재하고 속미만 속실히 봅니다. 속미가 멧장아 새 양복을 입고 왔으므로, 그것이 모와서 그리 나보다 컸더니 웬걸요, 속미 손에는 피자 봉지가 들어 있었지요!

코끼리는 길이 붙어서, 사 람을 때치지 않는 고로, 별로 무서운 것은 없으나, 속미는 그대도 겁이 나서, 피 하려고 다가가, 옆에 광호가 서 있었으므로, 광호 손을 잡았습니다.

"젠장아, 자 그 피자 한 개 꺼내서, 코끼리 귀 피타" 하고 광호가 권하였으나, 속미는 아무래도, 그 큰 짐승이 무서워서 무엇무엇하고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속속한 것이, 속미의 손 잔등을 핥는 것 같더니, 피자 봉지는 벌써, 코끼리의 그 속속한 코에 붙잡혀서, 두두로 달려 입으로 속 들어 가고 말았습니다. 속미는, 피자봉지를 뭉쳐 데워서 비번 것입

니다. 참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 일이었습니다. 놀라서 뭉그대진 눈으로 쳐다 보고 있는 속미 앞에서, 코끼리는 능청맞게도 시침을 마 면채, 순식간에 피자봉을 삼켜 비미고는 빈 종이 봉지를 발로 밟아 버렸습니다.

"속싹장이 코끼리 같으니" 속미는 그 뻔뻔스런, 코끼리 풍을, 바보며 지루 입을 떠었습니다. 그러나, 속미는 마음 속으로, 재 손에 쥐었던 피자 봉지를, 코끼리가 그렇게 단숨에 데앗아 먹은 것이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지금 일곱 살 밖! 안반, 속미로서는, 꼭 커서만 코끼리에게

재 손으로 피자를 한 개씩 꺼내 준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마침, 큰 코끼리 귀를 따라 조그만 새끼 코끼리가 어쩔어정 짙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속미는 데 앓진 피자가 아까운 생각이 났습니다.

"아가 코끼리를 줄 걸." 속미는 소리 내어 분해 하였습니다. 그 때 결해 제시면 삼 손이 속미를 돌아 보며,

"너 코끼리 다 볼래?" 하고 묻습니다.

"응? 무서워서 어떻게?" 속미는 집을 냅니다.

"무섭진 쥐가 무서워? 아 저씨, 난 달래야. 광호는 뭘 뜻이 기뻐합니다. 그때 속미도,

"난 그럼, 아가 코끼리 달래야. 큰 건 싫어."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큰 코끼리가, 고개를 띄 들



며, 우미를 그 빠른 눈으로  
느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눈이 마치,

“홍, 내가 꽤 싫어. 이렇  
게 점잖은데.”하는 것 같았  
습니다.

광호는 역시 코끼리가 타  
고 싶어서,

“이제서, 허서-가서 표를  
사요. 얼마나 사람이 많나  
구.”하며 삼촌의 팔을 잡아  
당깁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표 파  
는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차 거더리는 사람들 모양  
으로, 줄을 지어 줄어 섰는  
사람들 뒤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차례가 되  
어서, 표를 사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주만은  
아무리 광호가 안고 타자고  
말해도 홍이도, 끝내 싫다고  
발피똥아를 쳐서, 그만 포만  
한 잠 내버렸습니다.

우미는 광호와 들어서, 여  
터 아이들과 함께 코끼리 등  
에 앉아, 마당을 한 바퀴 돌  
았는데, 코끼리 등이란 상상  
하던 것처럼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어서, 재머도 그다  
지 없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선 내리 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삼촌이 웃으시며, “광호  
야 내가 코끼리라 한다면, 이  
렇게 더운 날 종일 아이들을  
한동씩 태우고, 넓은 마당을  
돌구 보 돌구하면, 마음이  
어떻겠니? 나 같으면 그까지  
짓, 한 번 등을 흔들어서,  
아이들을 다 떨어뜨리고 온  
이탈로 한 민석, 자라 떨어

주겠다.”하십니다. 광호는  
그 말에 다시 잠깐 코끼리  
를 돌아 보니, 다음 차례 아  
이들을 또다시 한동 태우고  
마당을 돌아 가는 그의 가드  
다만 눈은, 이젠가 간사스런  
웃어 떠 드는 것 같아서  
“아이 무시워.” 하고, 저도  
모르는 세에 몸서리가 치겠  
습니다. 이것을 보진 삼촌은  
소리 내어 웃으시며, “이런  
농물원에 와 있는 코끼리는  
건이 붙어서 쉼없다. 코끼리  
고함 나락에 가 보면, 코끼  
리가 배를 지어, 재부 잡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데, 사  
람 이상으로 일을 잘한다.

그러나, 삼촌이 사는 볼 초  
기라는 성미가 사나워서 어  
떨 때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수도 있단다. 내가 우주만과  
남쪽에 갔을 때 당한 일인데  
잠 벌은 삼촌으로 물어 갔  
다가, 한 코끼리를 만나서...  
...하시더니, 갑자기 조끼  
주머니에서 최종 사제를 꺼  
내 보시고는,  
“아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머물고 있  
었구나. 자 후자의 속기는  
집에 가서 밤에 천천히 하구  
일제 포럼 저녁 먹는 구경을  
하여 가야지.”하고, 말씀하  
셨습니다.



문교부 편수국 편찬자 김 제 령

### 3. 별파 낮

권구는 자전하면서 내의  
물레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는 강강 빛과 뜨거운 열을

가지고 항상 비치고 있습니  
다. 우리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생물  
은 다 태의 빛과 열을 받아  
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동 같이  
둥글게 생겼으므로 태로 향하는  
반쪽 면은, 햇빛  
을 받을 것이고,  
반대 쪽은, 햇빛  
을 못받을 것입  
니다. 햇빛을 받  
는 쪽은 낮이 되  
고, 햇빛을 못받는  
쪽은 밤이 됩니다.  
지구 위의 일진

한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는 데에 따라 어느 때는 태양으로 향하여 햇빛을 받고, 또 어느 때는 반대 쪽이 되어 햇빛을 못받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밤과 낮이 생깁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아시려면, 다음의 같은 실험을 해 보십시오.

**[실험]**— 평평한 방에서 외중전등을 턱으로 삼고, 지구 모형(地球儀)이나, 큰 공을 지구로 삼아서 지구모형을 천천히 돌리면서 외중전등을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을 찾아서 어느 때에 낮이 되고 어느 때에 밤이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 전등이 비추는 밝은 곳에 있다가, 차차 어두운 곳으로 돌아갈 때는 때가 점점 거고 차차 어두워진 저녁 때입니다. 그 후 암암한 그늘 속에 들어갔을 때는 밤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차차 밝은 곳으로 나올 때는, 아침 때가 들을 때입니다. 전등이 비추는 환한 곳에 있을 때에는 낮입니다.

이것으로 밤과 낮이 생기는 까닭을 아리 문은 아셨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사철이 생기는 까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는 새도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새가 공중을 나는 새수를 가졌다 하여도, 처음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날 수가 없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손을 하나 까딱 않고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하늘을 쓰고 도리질 한다**

넓은 하늘 밑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곳이 아주 잔란 할 뿐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뽐내지 않아도 남이 그를 알아 줄 것이다.



**동남도 안주고 자투 깎는다**

동남을 못 주겠으면 그때 또 잘 풀러 보내는 것이 마땅한 노릇인데, 도리어 욕을 타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가지도 남을 도와 주지는 못 할망정 아무 까닭 없이 남의 일에 희망을 놓을 때 이 말을 쓴다.



**약방에 감초**

한약에는 마개 감초가 많이 감다. 그래서 약방에서는 다른 약재는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감초만은 언제나 있다. 무슨 외환이 있을 때마다 빠짐 없이 참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한다.

(그림·김 의환)



# 장편 모험 소설 목마단의 비밀

복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 20. 성공이냐 실패냐?

하인은 별로 의심하지도 않고, 돈 50 천만 감사하셔서 그러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두 시간이나 지나서, 밤이 몹시 깊은 데에, 절름발이 늙은 신사는, 기치장스런 제 절름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지킴 하인이, 편편 끊는 차를 받아 들고 쫓아 가서, 구수를 심으려고 허리를 억지로 굽으려던 그에게 데접하였습니다.

그 때 한주희·상호가 급한 일이 있는 듯이 후다닥 뛰어 나가, 신발을 신는 제하다가, 지킴 하인에게로 쓰러지는 것처럼 하면서 차를 들고 왔는 말을 했습니다.

“에그어넛!”

하면서, 지킴 하인이 끌었던 찻간을 뚝 떨어뜨리자, 그 뜨거운 차가 절름발이 늙은 신사의 양말 신은 발에 쏟아졌습니다.

“아, 왓, 뜨거!”

하고, 일본 말로 소리 치면서 늙은 신사는 벌떡 일어나서, 한 발로 딛고 한 발을 들어 흔들면서 절름걸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데 받은 절름발이고, 피터고 싶던 말은 절름거리던 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상호는 급실급실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모두 이층으로 올라 와서,

“여보, 기호씨 물어 맞았소.”

그들이 분명히 목마단 단장녀석이요.”

천만 못 밖에 그 늙은이가 목마단 단장이라는 말에, 한 기호는 어떻게 반가운지 절기영·현빈·사담 같이 뛰어들어 물었습니다.

“내가 일부터 그놈의 발에 대한 차를 없애본 것은 그놈이 정말 바리 병신인가 자꾸 병신인가 그것을 알고 그렸소. 그래 엄질더

놓고 그놈의 발과 얼굴을 주먹에 모았더니, 절름거리던 발을 밟았지. 피터고 싶은 것을 보니, 저절로 가락 절름발이입니다. 그러고 ‘아, 뜨거!’ 하는 소리가 늙은이 소리가 아니고, 아주 기운찬 젊은 소리입니다. 그때 얼굴을 보니, 모두 목마단에서 연극할 때에 쓰는 수염을 붙인 것이 분명하니, 그놈이 목마단 단장인데 남의 눈을 속이고 언저서 아 김주희와 만나느라고, 그렇게 농성스럽게 절름발이 행세를 하는 모양이요. 자, 허시 일어나시오.”

두 사람은 몸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반개 같이 뛰어들어 문을 두드리고, 여전히 텅 빈 길로 절름절름 건너가는 흉악한 목마단 단장놈의 뒤를 따라 왔습니다.

“저놈이 우리가 이렇게 조질서 여기까지 쫓아 와서, 지금 저의 차를 밟아 가는

줄 알까 모를까.  
 “글쎄, 알기만 하면 학박  
 돌아 서서, 우리에 무슨  
 것을 알는지 모르지……”  
 “이 바닥에 저놈의 부하가  
 어디 어느 구석에 숨어 있  
 는지 모르니, 위험해요.”  
 두 사람은 수군수군 거들  
 을 꼬미면서 마당 갑니다. 한  
 참 지나가 기호가 불안간,  
 “어우!”  
 하고 상호의 팔을 잘 붙잡고  
 귀로 수군하셨습니다. 상호도  
 깜짝 놀라 주살하고 서서 보  
 니, 큰 일 났습니다.  
 앞에 가던 단강놈이 불안간  
 우쪽 서더니, 뒤 돌아 서서  
 두 사람에게로도 걸어 올니다.  
 두 사람은 머리끝까지 오  
 락하셨습니다.  
 저쪽 걸 걸이 암암하고 음  
 씩한 걸로 숨을 죽이고 귀를  
 잡아 가던 상호와 기호는, 앞  
 에 가던 거짓 절름발이가 불  
 안간 돌아 서는 것을 보고,  
 가슴이 상흔하여 팔쪽 걸이  
 우쪽 섰습니다.  
 마귀보다도 더 흉악스러운  
 폭마단 단강놈이 무슨 말을  
 먹고 돌아 섰을까?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는 절름절름  
 우쪽 섰는 두 사람 편으로  
 걸어 왔습니다.  
 “큰 일 났다!”  
 저놈 잔 놈만 잡으면, 그더  
 씩미할 것 없이 힘 대로 싸  
 워 보지마는, 만일 저놈이 달  
 리 풀면서 절름발을 하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부하들이  
 뛰어 나오면 어찌할까? 그  
 런 것 저런 것 믿는 것 없이

는 저런지 혼자서 가잡게 달  
 리 풀 이가 없는데……  
 걸기 같이 두 생각 거 생각  
 작이 두 사람의 머리에 빛났  
 다. 저절로 할, 사이에, 벌써  
 그들은 두 사람의 코 앞에까  
 지 와서 우쪽 섰습니다. 그리  
 고는 고개를 숙 내밀더니,  
 “혹시 성냥을 가졌으면 하  
 나 주십시오.”  
 하고 눈썹스름제, 함은이 소  
 리로 물습니다.  
 아들 함은이 자세히 보니  
 까, 이는 그의 함에는 모두방  
 풍동대가 붙어 있습니다.  
 달려 들지 않은 것만 다들  
 히 여기고 기호가 성냥갑을  
 꺼내 주려고 양복 주머니를  
 귀적귀적하는데, 상호가 기호  
 의 팔을 꼭 잡으면서, 그놈을  
 향하여,  
 “예, 미안합니다마는 우비  
 는 담배를 못 먹으므로, 성  
 냥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

니다.”  
 하였습니다.  
 “흥, 이거 밤 걸을 걷는 데  
 는 담배를 피어 붙어야 하  
 는데, 성냥이 없어서 못 피  
 겠군!”  
 하고 손жат소비를 하고,  
 “실례 하였습니다.”  
 하고는 다시 돌아 서서 절름  
 절름 걸어 가기 시작하였습  
 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마음을  
 휘 놓았습니다. 그리고 퉁퉁  
 히 보 그 귀를 잡아 가기 시  
 작하셨습니다.  
 “어보, 왜 아까 내가 성냥  
 갑을 내어 주는데, 당신이  
 없다고 막아 미쳤소?”  
 하고, 기호가 상호에게 궁글  
 히 물었습니다.  
 “그놈이 정말 성냥이 없어  
 서 우리더러 달라 할 이가  
 있나요. 우리에게 성냥을  
 달래서 담배 불 붙이는 게



하고, 상냥 불로 우리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그  
랬지요.”

“하하하, 나는 잠깐 모르고  
있었소! 꺼내 주었더라면  
큰 일 날뻔 하였구며.”

“큰 일 나구 말구, 그렇게  
얼굴을 코 앞에 들이 내고  
불을 쳐 들고 들여다 보면  
우리 얼굴에 수염, 만물이  
풍안 것과 변장한 것이 모  
두 들릴 일 아니겠소.”

“글세 말이요. 나 때문에  
존날뻔 하였조.”

하고 소근거리면서, 앞에 걸  
음거리면서 가는 단장놈이  
어떻게 더 능청스럽게 보이  
고 흉칙해, 보이느니, 좋이다  
도 있으면 그냥 쓰야 버리고  
싶지 미웠습니다.

### 21. 이상한 압호

참람한 거리로, 문목을 밋  
번인지 꺾어서, 절름발이는  
어느 광고 같이 생긴 이층집  
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붉은 벽돌로 모양 없이 문  
튼스런데만 지을 집, 어두운  
밤이니까 그 무거운 문이 마  
치 감옥소문 같이 보였습니  
다.

위에 따라 가면 두 사람은  
끝 길가 어두운 구석으로 기  
어 붙어 숨어서, 그의 동작을  
노려 보고 있었었습니다.

절름발이가 거기 처서 전  
후 좌우를 휘휘 모더니, 아무  
도 보는 이가 없는 할을 알  
고 안심한 듯이, 문 앞에 바  
짝 붙어 서서, 대문은 안으로  
부러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어  
다 보고 무어  
라고 푸근푸  
근 하는 것 같  
더니, 절름발  
이는 앞으로  
쭉 들어 가고  
무거운 문은  
다시 굳게 닫  
혀졌습니다.

“저놈의 집  
이 까닭이  
있는 집인  
모양이군!”

하면서, 두 사  
람은 어두운  
구석에서 뛰  
어 나와 그 이상한 벽문집을  
부루 살피기 시작하였습니  
다.

대문 앞에까지 바짝 가서,  
성냥 불이라도 켜 들고 문패  
며 번지 수를 조사하고 싶었  
으나 그러나, 그놈의 대문 한  
걸 안 쪽에 어떤 놀이 문적  
이 노릇을 하고 앉았는 모양  
이니, 신발 소리를 내거나 성  
냥 굶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당장 뛰어 나오겠어서 그것  
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집  
앞에는 문목이 있는 것과, 위  
로는 앞으로막힌 중국 집과 맞  
붙어 있는 것과, 문목으로 눈  
은 담이 쌓여 있는 것만을  
조사하였습니.

“이크, 또 화요. 또 한 놀  
이 소리 붙어 서요.”

기호가 속살지르는 소리에  
상호도 그 일 문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서서 보니, 과연  
안쪽 위에 의무 실은 한 남



이, 그 집의 대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 집 벽 밑  
이마 아까보다는 훨씬 가까  
워서, 그놈의 손짓 하나 말  
소도 하나도 떠놓지 않고 들  
고 보고 할 수가 있었습니.

그놈은, 대문의 손잡이 위  
를, 손등으로 푹푹푹 톡툰  
히 꼭 일곱 번을 때렸습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으로부  
러 문이 열리고 한 놀이 모  
게를 쭉 내미는데, 그 때 안  
으로부터 피마하나마 동물  
빛도 비친 나왔습니.

의무 실고 온 놀은 이번에는  
원진 손을 주먹 쥐어, 꼭  
내밀더니, 마른 편 손의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과  
끝을 내밀어 왼손 주먹 위에  
두 번 붙었다 놓았다 하였습  
니다. 그러니까, 내다 보면 놀  
은 대문을 더 활짝 열고 그  
놈을 붙어 보내고, 다시 무집



제 달아 버렸습니다.  
“자세히 보았소? 대문을 열람 번 두드리고 그러고 왼손 주먹이 바른 손 두 손가락을 두 번 내어 던 것이 분명하지요?”

“분명히 그랬소. 아마 그것이 그놈들의 암호인 모양이요.”

“그러면 그제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던지 암호까지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은 분명한 모양이요.”

“그야 물론이겠지요.”

무서운 심, 어두운 담 밑에서 가슴을 울림지하면서 소근소근할 때, 그 때 또 그 짐 문 앞에 와서 손 잡이의 위를 두들 때리는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꼭 그렇게 눈과 귀를 겨우렸습니다.

이번에 손짓은 일본 옷 입은 여자 한 사람, 줄줄 옷 입은 남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문지기 의 얼굴이 쑥 나오더니, 여자를 보고 머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와는 역시 각각 왼손을 주먹 쥐어 내밀고, 오른 손 두 손가락을 그 위에 두 번 내밀어 보이고 죽 물이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으레 그렇게 하고야 붙어 가는 일종의 규칙이 분명하였습니다.

꼭마단 담장과 그 부하들

의 비밀! 그것은 대체 무슨 비밀이며, 왼손 주먹에 바른 손 두 손가락은 무슨 의미일까? 두 사람은 가슴을 울림키면서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서서 강리강리하였습니다.

어쨌던지 그놈들이 단순한 꼭마단 때가 아니고, 어쨌든 그들의 나쁜 때가 더 많이 있



어서, 모두 연타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만일 무슨 무서운 비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계속—



○명 담

선생님 “이번 매종아 전쟁에 일본이 언제서 걸는지 아니?”

학생이 “네, 연합국 때문에 걸었습니다.”

(서울 무학 국민 학교 6년)

임 창성)

○서 힘

선생님 “너희들 시험 볼 때 옆에 사람 잘 보고 쓰면 안된다.”

생도 1 “선생님, 그럼 뒷사람 잘 보고 쓰면 괜찮습니까?”

선생님 “?”

(강원도 원주읍 명암동 222)

남 상원)

○그 물

선생님 “고기 잡는 그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부남이 “제가 대답하지요. 조그만 구멍을 많이 뜨아 가져요. 가는 실로 붙여서 하면 됩니다.”

(서울 방학로 6의 2호 기숙)

# 우리 나라 신문 역사 (1)

## 회 준

매일 아침 일찍이 신문 배달이 던져 주고 가는 신문은 마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밥 먹는 거와도 같이 하루라도 못보면 좀이 쑤실 뿐 만 아니다. 온 세상 일이 어찌 돌아 가는지 알 수 없이, 눈 앞의 캄캄 터질만큼 우리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조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간 신문(日刊新聞)은 없으나 어른들이 읽는 신문을 매일같이 흥미 있게 읽는 동무들도 있을 것이요 또는 정기 간행물(定期刊行物)인 이 "소학생"을 열심히 읽는 동무들도 많을 것이니, 이것은 모두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일 것이니 신문의 역사야말로 태고 시대(太古時代)까지 올라가서 생각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일 것이나, 아득한 미개 시대는 말할 것이 없고, 지금으로부터 약 2천 여 년 전에는 요제 보

는 것과 같은 신문은 아니나 일종의 관보(官報) 비슷한 것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대표하는 중국(中國)과 로마(羅馬)에서 이미 이러한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알려 주는 것보다 임금(王)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잘 순종하도록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 진실한 의미에서 신문이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되어 공의를 만드는 법을 발견하고 활자(活字)를 또한 발명함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신문을 임금 아닌 일반 유정(有情)들이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있어서도 지금으로부터 1200 년 전에 신라(新羅)의 신문왕 시대(神文王時代)에 설총(薛聰)이란 사람이 사(史)로써 관보 비슷한 것을 써서 사람에게 부치었다고 하여 조선 신문 역사의 시초라 합니다. 그 후 이조 시대(李朝時代)에 들어 와서도 조보(朝報)가 나왔으며 조정(朝廷)에서는 승정원(承

政院)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와 행정상의 일을 일일이 기록하여 육조판서(六曹判書) 기마에게 매일 아침 전달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기별(寄別)입니다. 이 기별이야말로 훌륭한 정보로서 지금으로부터 54 년 전 갑오년(甲午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 하는 것은 이러한 관보가 아닌 일반 신문의 역사를 말하려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활자로 인쇄하여 내놓은 일반 신문으로는 지금으로부터 65 년 전 고종(高宗) 20 년(서기 1895 년)에 발간되어 나온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즉 그것입니다.

이 신문은 통리衙門(統理衙門)에 설치한 박문국(博文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편집자와 인쇄, 문선(文選), 서자(植字) 등의 직공을 초빙하여 서울에서 한 달에 일곱 번씩 세 번에 순한문(純漢文)으로만 되어 내놓았던 것이니 오랫동안 풍자년 국내 사람들에게 널리 세제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데 많은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순한문만이라 한문에 유식한 사람 외에는 읽기가 어려워 일반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커다란 결점이었습니다.

(계속)

# 위대한 모녀

## 큐우리부인과 조리오부인

### 박 동 식

#### 5. 어머니와 딸

1903년, 큐우리 부부가 노오벨상을 받았을 때, 어떤 젊은 신문 기자가 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블랑시 정부는 큐우리에게, 레온·드·누를 혼장을 주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가 이 소문을 전하니 피엘·큐우리는 딱딱 할만 못이.

"혼장을 줄다구! 그전 말미 없는지, 난 혼장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아, 과학자가 가슴에 혼장은 달아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소원은 훌륭한 연구실을 가지고 싶은 것뿐일세. 그러고……" 이렇게 말하다가, 마리 하터의 안내로 들어 온, 6, 7세쯤 되는 소녀와 머리를 숙여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리한 누 눈과, 넓은 이마에 금빛 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피엘은 딸을 이리,

"연구실, 그리고 이 세가 우리의 뜻을 이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준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소."

"이레에누!" 하고, 옆에

있던 큐우리 부인도 말하게 말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지 아피지 계를 이어서 그럴지?"

"엄마, 난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될래요." 하고, 딸은 머리를 가웃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이튿날, 이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큐우리씨는 혼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대학에서 설비한 잘 된 연구실을 만만히 준 것과, 사랑하는 따님이 잘 배워 과학자로서 부모의 사업을 계속할 줄 것, 이것 뿐이다.

큐우리 부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샬렌누 대학에서는 훌륭한 연구소를 얻어서 부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엘은 불과 2·3년 밖에 이 새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1906년 4월 17일, 피엘은 샬렌누의 어느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것은 밝가운 옛 동무들의 모임이어서, 피엘도 희글겁게 놀고 돌아 오는 길에

그만 마차에 치어 몹시 다쳤습니다. 부인이 병원내 귀머귀였을 때는 이미 피엘은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눈을 떴으나 벌써 말할 기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말 없이 자기를 울려다 보는 남편의 눈 속에서 똑똑히 남편의 마지막 부락을 알아 차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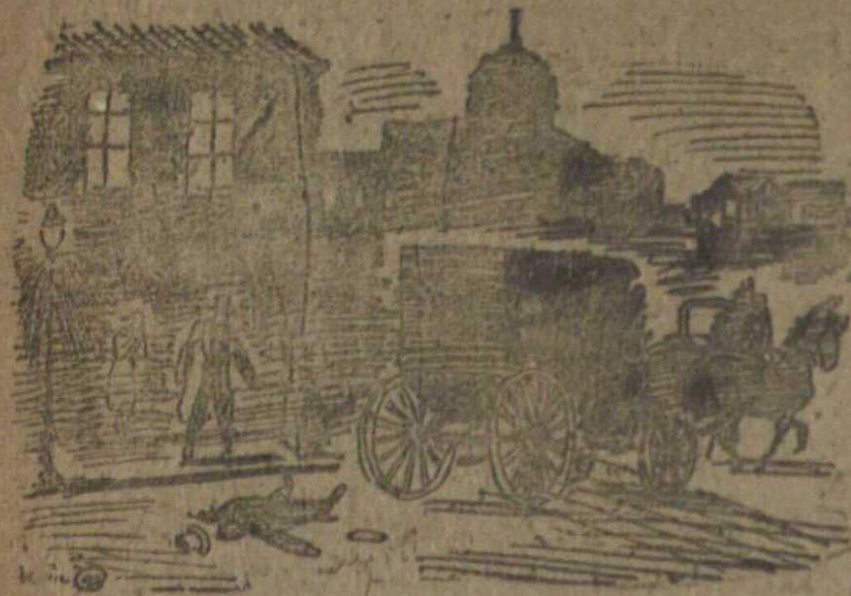
"아이들을 부탁하오."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훌륭하게 끝마쳐 주시오."라고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백했습니다. 마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방금 쓸하질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46년의 빛나는 생애를 남기고 피엘은 뜻하지 않은 최후를 마칩니다. 블랑시의 유명한 과학자 프랑카레에가 말한 바와 같이 사상의 교환과, 서로 애별기 이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자칫하던 과학자가 딱지거쉬운, 낙담과 무기력에서 서로 구하고 있던, 세상에도 보기 드문 부부의 힘력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부우르바아르·제레프만 있는 큐우리의 집은 피엘이 죽은 후, 갑자기 물이 꺼질 듯 적적해질 것입니다. 피엘의 아피지 우우치에느는, 모든 기쁨을 잃어 타면 사람같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레에누는 딸



새 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제 또다시 아버지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짝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일곱에서는 전과 같은 명랑한 웃음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만 1904년에 난, 들에 깔 애애브만이, 천천히 웃음 소리를 내어 매메르 어 적적한 잠을 명랑하게 하였습니다.

막터이는, 그러나,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시 아버지와 어릴 두 딸을 데리고 그는 전보다도 더 연구에 열중하였습니다. 연구하는 그것만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고, 연구실에 들어만 가면, 그는 세전과 같이 남편이 거기 있는 것만 같아서 시험관을 만져보고 앉았느라면 옆에서 피엘의 조용한 울성이 들릴 때를 을 뜻한 생각이 들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카우터부인은 남편 대신으로, 알빈부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1910년, 부인은 드디어, 라더움을 그것만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은 카부슴 비슷한 은빛의 금속물이어서, 섭씨 7백도에 녹으며, 또 햇빛에 의지나 물에 넣으면, 즉시 색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 내었습니다.

부인은 정체를 드러낸 라더움을 보면서,

"이 금속을 피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부인은 이 목적으로, 부번제의 노오델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부인은 물리학 학자원 회원에 추진되었습니다.

제 일과 세계 대전이 터지기 바로 전에, 알빈부 대학은 라더움의 연구를 위해서

특히 라더움 연구소를 짓고 부인을 그 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자, 부인은 부상병의 치료 때문에, 연구소를 나와, 전쟁터로 돌아 다닙니다. 라더움 방사능의 조사(照射)로 병을 치료하는 법은, 부인이 발견한 것으로서, 이것을 "알빈의 요법"이라고 합니다. 라더움 방사능은 약성의 풍기에 독소가 있어, 어디까지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으면 모든 합종 풍모 이 치료법으로, 완전히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육군 병원 기차에서 다섯 리 동안, 부상병의 치료에 애쓴 공적은 왕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인은, 명예 속에 켜어 있었습니다. 1921년 미국의 고운 여자는 미국 부인들이 세계 여성의 자랑인 카우터 부인의 명예를 찬양하되, 대통령 하아덜을 봉하여, 한 그달의 라더움을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한 그달, 그라짓 것으로, 뭐라느냐고 이리 묻은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권대로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라더움은 한 최음에 카우터 부인이, 한 돈의 빚서부덴드수에서 끼웠을 때에도, 불과 몇 미터그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니, 그 값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한 그달의 값은 25만 달러, 조선 돈으로 말하자면 80만

원(제가 1939년 경의 가격으로)이나 하는 것입니다. 1922년에는, 물리학회의 창간자인 큐우리 부인을 회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10월 20일에는, 라듐 발견 25주년의 대축하회가, 과덕에서 열렸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각계 명사가 이에 참석하였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국립 과학 협회는 금패를 부인에게 보내고, 스톡홀름 과학 협회는 부인에게 명예 회장의 이름을 보냈습니다. "라듐 요법" 연구를 위해, 각국의 대도시에는 라듐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 장소마다, 부인이 참작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세계 대전 후에 유럽학, 프롤레트르 시을 활조 오에, '부인 자신이 라듐을

연구소를 만들은 것은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1934년 7월 4일, 알프스산 밑, 산데르모 요양소에 서 마리아 큐우리 부인은, 그 빛나는 생애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라듐의 조사(照射)를 받은 것이, 그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시체는 유엔대로, 과덕의 교외 쓰오에 있는, 남편의 무덤에 가까운 곳에 안장되어 모여 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영예는 이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영예는 부인이 죽은지 1년이 지나 말할 이레예누와 그의 남편 조리오에 의하여, 마리아의 무덤에 바쳐진 것입니다. 이레예누는 할렌 대학의 의학 부를 졸업한 후, 그 어머니의 사모에 따라 어머니의 연구소에

행과 마리아가, 리프만 교수의 연구실에서 맺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학문으로 인하여 손을 잡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들의 협동 연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인공 방사능"의 발견입니다. 원래 라듐 같은 물질은 방사선을 방사하여, 차차 그 물질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원자핵(原子核)이 자연히 깨져 일어나는 것으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1919년에, 라자프 온트가 처음, 인위적으로 원자를 깨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조리오 부부는 라자프 오드의 연구를, 한층 더 진전시켜,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전기량 미지 않은 중성의 입자(中性子), 즉 중성자를 발견하여, 마침내 인공 방사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많은 방사성 원자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자핵의 구조론이, 한 발자국 더 진보한 것입니다. 1935년, 조리오 부부는 이 공적에 의하여 노벨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협력으로서 노벨 상을 받게 된, 두번째 일입니다. 큐우리 부인은 남편 이레예누를, 돌아간 남편의 희망 대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길러낸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마리아의 가장 큰 명예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연구소에서 연구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오는 같은 연구소에서 가장 우수한 학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전의

입니다.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또한 과학자로서의 쿠우리 부인의 위대한 점은 이 사실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936년, 불탄서의 유명한 젊은 기자가, 이테에누·쵸리오·큐우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테에누는, 그 말에 새로 된 부를 내각의 보전 대신으로 임차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들어 간 이테에누의 연구실에는, 남편인 쵸리오도 있었습니 다. 두 사람은 똑같이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깊은 감개에 빠졌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아직 서무론 신문 기자로서 큐우리 부부를 찾아 갔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그 때, 하녀에게 손을 잡혀서 들어 오던, 귀여운 금빛 머리의 소녀가, 지금은 불탄서의 대신으로서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대신인 이상은 불탄서 국민의 보전에 권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도 국민의 보전을 위해서는 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까요. 그러나, 내가 대신이 된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과학에 전심하기 위해서는, 대신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의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테에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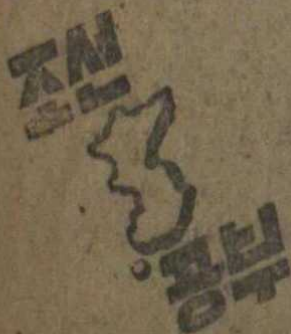
“그렇구만요. 나는 내 아내가, 대신이 되는 것은 그의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대신의 직분보다 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는 따로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나, 이 일에는 바뀌 할 사람이 없습니다.”쵸리오도 옆에서 말하였습니다.

대신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관직입니다. 대신이 되는 것은, 최대의 명예로 보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이 있어, 거기에 비하면 대신 같은 것은 아무

나 바뀌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혼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쵸리오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 아버지의 정신이, “대신 같은 것은 그만두는게 좋다.”로 하는 말로서, 그의 사위의 머리에 전하여진 것입니다. 큐우리 일가에 파악 있는 이 순수한 과학 정신에, 젊은 기자는 자열히 머리가 숙으려겠다고 합니다.

그 후 석 달 만에, 이테에누는 보전 대신을 그만두었습니다. 과학에 전심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사직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이 연구 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쵸리오 부부는 그 후,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까? 세계의 모든 사람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두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새 세기대건으로 인해서, 아직 그들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끝)



### 전신 (電信)

통신 기관이 발달될수록 그 나라의 문화가 장

상되고 모든 산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는 어느때부터 전신이 생겼을까? 제일 처음에는 서기 1885년에 서울과 북경(北京) 사이에 전신이 놓히게 된 것인데, 이것은, 그 때 청국 정부의 손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

국 정부가 저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감시하에 외국과의 통신 연락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어떤 가지 곤란을 무릅쓰고, 위선 서울과 부산 사이의 원양을 거쳐 중국(露國) 사이에 전신을

가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T·E·할리콥스키 사(技師)의 손으로 서울과 부산 사이의 공사가 첫 달 동안에 완성되었으니, 때는 1886년 4월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조선 사람들도 처음으로 통신의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 등화 자동차 3등

## 고한승

작양 어떤 나라에 기차나 기선이 다니지 않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는 날마다 정기택시가 다니서 손님들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동차에는 1 등, 2 등, 3 등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차나 기선이면 1 등이나 2 등이니 하고 구별이 있지만, 조그만 자동차는 좌석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1 등, 2 등, 3 등의 구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자동차

는 등급을 가려서 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돈 많은 사람은 1 등 포를 사고, 돈 없는 사람은 3 등 포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손님들을 차에 태운 후, 자동차는 얼마를 가다가 큰 고개 밑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개가 어떻게 높은지 자동차는 제 힘으로는 모저히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 밑에 차가 막 정거를 하며, 운전수가 하는 말이,

“1 등 포를 산 손님은 그대로 타고 계시고, 2 등과 3 등 손님은 내리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3 등 손님은 그대로 걸어서 이 고개를 올라가시고 3 등 손님은 미안하지만 자동차 뒤를 좀 밀어 주셔야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오오라 그제야 자동차에 1 등, 2 등, 3 등의 등급을 지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 등 손님은 그대로 차를 타고 앉아서 고개를 넘었고, 2 등 손님은 두 팔을 뻗어서 길이 갔고, 3 등 손님은 땅을 뿔뿔 풀면서 자동차 뒤를 밀고 올라 갔습니다.

여러 분! 여러 분은 1 등 손님이 되시렵니까? 2 등 손님이 되시렵니까? 혹은 더 본 사람을 위하여 땅 풀며 일하고 힘줄에 남을 도와주는 손님이 되시렵니까?

(그림·김 의환)



# 어린이 새소식

너도 나도 배우자

## 우렁차게 들려 오는 "가까 거꺼"

태음이 들리자니 3년! 그 사  
이에는 특히 기록할 만한 사실이  
합중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서도 눈 뜬 장남 죽은 모요는 무  
식장이가 나날이 줄어 가고 있다  
는 것이 제일 반가운 일일 것이다  
1945년 5월(태방 전) 현재로 보  
면 13세 이상된 사람으로 글 모  
르는 사람이 7,977,977명이었  
다고 한다. 이것이 1946년에 이  
르면서는 5,401,160명으로 줄었

으며, 1947년 8월 말 현재로는  
2,771,48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금 이 문명이 하나도 없는 나  
라는 스위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여덟 나라이다 하며, 우리 조선  
은 문명이 된 인구의 30%로, 중  
국의 80% 스페인의 46% 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조선 안에서  
문명이 제일 많은 곳은 전라남도  
로 문명률은 45%나 된다고 한다.

### 애국 소녀

#### 유 관순 양

조선 사람이면 차마 눈물 없이  
생각 못할 저 기미년 독립 운동시  
대, 불 같이 끓어 오르는 애국심  
에 못이겨, 한 목숨을 조선 건국  
에 바쳐 버린 순국 열사가 한 구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중에도 가  
장 기록한 것은 불과 열 여섯 살  
먹은 어린 소녀의 몸으로써, 시  
골의 농민 3천 여 명을 동원해 가  
지고 "조선 독립 반세"를 부르다  
가, 그만 그의 부모는 총살을 당  
하고 자기는 일본 관헌에게 제포  
되어, 7년 징역의 일도를 받은  
물기에도 눈물나는 애국 소녀가  
있었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울지  
않고 미친 듯이 만세를 불러, 나  
중에는 해적의 흉악한 총알에 영

원히 사라지고 말았으나, 이 일  
마나 슬픈 이야기나? 그의 이름  
은 유 관순(柳 官順)이라고 하며  
출생지는 충남 천안군 동면 지평  
리(地靈里)라고 하는데, 이 이야  
기는 태방 후에 비로소 처음 알  
려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  
양의 출생 학교인 서울 이화 여자  
중학교(梨花女中)와, 유 관순 거  
념 사업회 발기로 유 양의 고향  
에 기념비(記念碑)를 세우고, 지  
난 11월 27일 오후 2시 병천(並  
川)에서 본교 담장과 사의 유지  
및 이와 어울 합창단이 참석한 아  
래 기념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  
였다고 한다.

### 폐결핵은 고칠 수 있나?

지금까지 폐결핵(肺結核)이란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라고 생각 각함이 모두 그렇게  
일어 왔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  
을 의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 치료법은 연구  
성공하신 분은 서울 여자 의과  
대학 교수 김 준업(金 準業)박사  
인데, 동 박사가 독일 유학 시대  
의 경험과 그 후 계속적으로 연  
구를 거듭한 결과이라고 한다. 이  
모래 조선 사람의 4.5% 되는 폐  
결핵 환자들에게는 물론 결 세  
제 인류의 광명이라 아니할 수 없  
다. 그리고 김 박사는 경남 마산  
도립 병원에 폐결핵 연구소를 두  
고 앞으로 더욱 연구에 힘쓰리라  
고 한다.

###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낼까 만주의 동포들

태방후 만주로부터 약 80 만의  
동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 왔으  
나, 만주에는 아직도 150만 명이  
나 되는 동포가 머물러 있다고 한  
다. 동북 동포 대포단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중 140만이 살고  
있는 간도(間島) 옥단강(牧丹江)  
지대에 관하여는 그 소식을 알 것  
이 막연하나, 중국 중앙군(中央  
軍) 지구대에 있는 동포 10 여만  
명은, 차마 열에서 보고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오지도 않는 귀국선(歸國船)을  
하늘 같이 보고, 하루가 10 년 처  
럼 그것을 눈이 떠지지. 기다리도  
판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만일  
국내에서 아무런 구제책이 없으  
면, 이 많은 동포들은 그 광막한  
만주 벌판에서, 입 지출을 무사  
히 넘겨기가 어려우리라고 한다.

### 패전 후의 독일

#### 하루에 빵 네 폭

독일 뿐만이 아니라 동외 생활



남은 우리 조선과 다른 것은 모양인데, 독일 부인 카낙 여사는 독일에서 최근의 독일 소식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독일을 떠날 때, 거기마다 어린이의 사체가 걸려 있어 그 형체는 이름과 나이 부모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전쟁중에 부모를 잃고 집을 잃은 어린이들을 찾아 가려는 장교다.

식량은 하루에 푸른 이슬만이라도 배 위의 배급이 있을 뿐이며, 집 없는 실업도 대단하여, 전계 인물은 절거름에서 살고 있다.

학교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공부하는데, 5부 6부로 나뉘어 공부를 하여 교과서도 물론 없고 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더 많은데 그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나쁜 비웃음 받게 되는 형편이다. 학교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해서 공물 모으는 것만까지 좋아다 할 지경이며, 전기 역시 하루에 한두 시간 밖에 안들어 오며, 도둑을 하면 벌금을 물고 심하면 살형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속에서도 청년 운동이 시작되어 조국의 건국을 부르짖고 있다.

### 제주도에 방송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매일 갈까운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濟州島)의 주민들은, 본도에 방송국이 꼭 하나 필요하다는 절박한 중앙 당국에 전정하여 왔었는데 조선 방송 협회(朝鮮放送協會)에서는 그 중요성을 느껴서 지난 11월 중순경 총 협회장 이경철(李晶澤) 기술국장 한덕문(韓德文) 양씨가 제주도에 출장하여, 실제 조 현지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방송 거처 준비는 일찍 다

### 2 점 별 점의

### 혀지 않은 시체 발견

요즘 조선의 고고학자(古高學者) SK 부인코 씨는 시베리아의 일라이 지방에서, 2월 2년 전에 죽은 소년 소녀의 두 시체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시체를 발견한 부인은 시체를 파낼 때, 문은 꼭 닫고 흙으로 덮은 것을, 파고 보니 이런 도둑이 발견을 중지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시체들은 시베리아의 찬 바람과 눈 속에서 마치 "얼음 상자" 같이 되어, 조금도 썩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체 옆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먹어도 괜찮을만큼 썩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되었고, 국사(屬舍)만 걸려서만 세터부터 500 원도 방송 장치를 주며 놓고 작자도 방송을 시작하리라 한다. 한편 목포(木浦) 방송국은 새라 2월 2일 완성된 예정으로 지금 새로 짓는 중인데 여권이 완성되면 여기서 500 원도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 한다.

### 려를 잡자!

### '무서운 "페스트병" 발생

요즘 조선 무서운 페스트(黑死病)가 한주와 조선 국경 지역에 발생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현재 조선에 있어서, 각 가정과 있는 쥐를 모조리 없애 버리는 도리 밖에 없다고 하는데, 보건 부장부에서는 일단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람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 학교의 소학생들을 통한 "쥐잡기 헌장"을 모집하여, 1등에 5만 원 2등에 2만 5천 원의 상금을 작도에 3교씩 주기로 하고, 그 당에도 제일 우수한 학교에는 10만 원의 특발장까지 준다고 한다. 기일은 12월 8일부터 2주일 동안이라고 한다.

### 일곱 살 된

### 천재 피아니스

올해 일곱 살 되는 어린 소녀가 피아노 독주를 하여, 수 천명 청중을 놀라게 한 일이 있다. 즉 이 소녀는 필라도 정부의 무척 실계(申基僉)씨의 차남으로, 과거 2년간 상해(上海)에 있는 스瓦斯비이라는 학교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그때 지난 11월 1일 서울 미군 24군단 구락부(전 무인관)에서 연주회를 하였는데, 청중들이 매만하였다고.

### 좋은 아협 책들

- 집 외한 그림 컬러버 여행기  
그림 매끼의  
책값 30 원 • 송료 5 원
- 집 외한 그림 토끼 전  
그림 매끼의  
책값 40 원 • 송료 5 원
- 현역 지은 동화 삼형제  
동화 화경  
책값 40 원 • 송료 5 원
- 이성철 지은 툴리기 위운 닭  
죽어 장모의  
책값 80 원 • 송료 5 원

주문하실 곳

乙酉 文化社

서울 鍾路 2街 永保險당  
振修 京城 32543番

# 소학생 구락부



▲어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사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소학생"에 나  
오는 "꼭마담의 비밀"은 슬프고  
도 재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때  
모 많이 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녕히 계십시오. (서울 방삼교 고  
기덕)

▲다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형님께 "소학생"을 빌려다 보고  
머칠 맛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중  
학교를 졸업 졸업하였으나 중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선 사람의  
하나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소  
학생"도 꼭 사 보려고 합니다. 달  
분간 두세번 달치씩 값을 부치  
면 보내 주시겠습니까? 부디부  
디 부탁드립니다.

소학생은 글동무 우리들의  
글동무.  
가르치는 글동무 제일 좋은  
글동무

(충남 아산 문포 분 재기)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  
라도 이겨 나가십시오. "소학생"  
은 부처 드려드립니다. (기자)

▲어머 선생님께! "아침"에 제  
신 머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학생"하고는 꼭 친하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제일 친한 글  
동무입니다. 그런데, 유쾌하는 것  
도 많이 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만 보낼 수 있습니다. (대전 대동  
고 김 정애)

조선사람들 얼마나 애를 보십니  
까?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본에서 자라서, 일본에서 소학교

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희망이 되  
어 조선 땅으로 건너 와 보니, 한  
글도 제대로 모르고 동무들도 잘  
사귀지 못한 터이다. 이는 어머  
가지로 꼭 의도했습니다. 그러니  
별된 알리지 "소학생"을 통해서  
친필설의 머리 선생님과, 또 온  
조선의 소학생, 동무 머리 분에게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그  
리고 "소학생"을 사 보려고 하는  
데, 값과 송포와 보내는 방법을 잘  
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럼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젊은 역전 해  
봉 여관내 신 태근)

△소학생 중에는 대방 주 일본에  
서 우리 땅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모름 낙침마  
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소학  
생"은 한 권에 값이 40 원, 송포가  
6 원이었었는데, 이달부터 50원  
으로 했습니다. 소위책으로 적 값을  
보내시면 작은 돈 보내 드려줍  
니다. (기자)

▲선생님 처음 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육상 경기를 잘하기로 유  
명인데, 요점에 우승기 한 것만 하  
도 다섯이나 되어, 그 전에 한  
것도 여섯이나 된답니다. 우리  
학교 동무들은 귀가를 참 잘 하  
요. 아마 다음에는 서울까지 가서  
한번 볼걸지도 모릅니다. 그 때는  
서울에 제신 머리 선생님, 또 소  
학생 머리 동무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충남 아산 문포 분 장  
기)

△참 훌륭합니다! 꼭 서울에 와서  
빛나는 우승기를 가져십시오. (기  
자)

기원 4281년! 서기 1943년!  
우리는 어수선하던 북을 피운 보  
내로 희망에 넘치는 새해를 맞이  
하였다. 머리 분은 이 즐거운 새  
해를 맞이하여 어떠한 새 계획을  
세우셨는지? 하루의 일은 아침  
에 계획하고 일년의 일은 정월 초  
하루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말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동무들 중  
다 관찰 수 있은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은바 어떻게 하  
면 몸을 튼튼히 할 수 있은바?  
가는 시간은 부족할 수는 없다.  
모르는 것을 배우 수는 없다.  
어머분! 부디 이 새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란다.

새해를 맞이한 "소학생"도 보  
시는 바와 같이 새 옷을 입고 나  
았다. 올 일년 또 머리 분의 동무  
가 되려고 하며, 어렵게 이겨나갈  
은 상이게 꼭으로 박게 된 것을  
바람이다. 조금씩이나마 커가는  
"소학생"을 인계부처나 읽어워 하  
시라.

(성 은 경)

1948年1月1日發行  
소학생 · 값 50 원  
1월치 ★ 제 53 호

編輯兼發行人 尹 石 重  
印刷人 · 主發  
發行所 兒 協  
서울 總路 2街 3保 57號  
電話 2-33070 2-3400 號

總發賣 乙酉 文化社  
서울 3區 223 號

小發行 ★ 文 華 閣 ★ 總路 2街  
協進印刷公司 印刷

★許可證號 第 190 號 ★許可 日字 1946 年 7 月 5 日 ★第 3 種 郵便物 認可 日字 1946 年 4 月 22 日 ★



집의 내력

①옛날 사람들은 이사를 잘다  
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은 천  
막 집을 짓고 살았다. ②도 남우지  
랜드 같은 곳에서는 무서운 짐승  
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가지 위



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고, ③물  
이 흔한 지방에서는 물 위에 다 집  
을 짓기도 했다. ④아메리카 토인

들은 숲 나무 가지를 꼭대기만 붙  
잡아 예 놓고, 그 속에서 세월을  
보낸 시절이 있었는데, ⑤차차 온  
흔하고 으레 견딜 수 있는 길이  
생겨서 ⑥근처에는 마천루(摩天  
樓)라고 부르는 굉장한 빌딩까지  
생기게 되었다.

# 옥동이 2

이영준

인순이  
언제 학교  
에 가니  
아주 눈이  
많아왔구나



앗! 저놈들바  
또 언숙물이를  
저렇게!

2



아이쿠  
어니—

아-말 많은  
다 화화화



학교엔 가지 않  
고 불쌍한 숙물이  
를 떠리  
다니,  
술지 좋은  
수가 있다.

정말 가엾어라  
어떻게 구할 도  
리가 없을까.



가만히 가만  
히 조금만  
더 가  
까희  
가서

눈 덩어리가  
흘러 온다.



미래도, 내  
몸이 어딴?



우리 절로 가서  
술었다가 옥  
동이 오거든 흥  
내주자.

그래! 정말  
분한걸.



옥동이 인순  
이 참 고맙다.

숙물이 인  
전 괜찮아.



선생님 발  
새 간생화  
실시까!

오나 옥동!  
인순이  
같이 가자



쉬- 옥동이  
저기 온다 이  
번엔 용서  
없다



불것 없다  
먼저라

앗!? 이게  
누그나옹!



아이쿠!  
크 큰 일  
났군 선생  
님들  
이

이 이놈들 골  
짜 말고 거기  
서거라

